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Tel. 2210-2114, 6490-6114  
[www.uos.ac.kr](http://www.uos.ac.kr)



VOLUME 58  
2012 UNEWSLETTER SUMMER

서울시립대  
도시의 땅을 밟고 길을 걷자

땅을 밟고, 길을 걷자  
서울을 걷다  
강촌에서의 '박' 2일

[www.uos.ac.kr](http://www.uos.ac.kr)



**서울시립대학교**  
UNIVERSITY OF SEOUL

Contents



「서울시 세계사」 통권 58호  
 이 소식지는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서울시립대 소식을 클릭하세요.  
 발행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  
 발행일 2012년 7월 13일  
 기획&디자인 Designida 02.337.5683  
 사진 作 Studio  
 「서울시 세계사」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교 인פק에서 일어나는 우리대학 관련 이야기들을  
 보내주세요. 관련 소식을 제보하신 분이나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과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곳 [miracle2u@uos.ac.kr](mailto:miracle2u@uos.ac.kr)

04 Photo Essay 서울의 어느 여름날

서울시립대

- 06 Special Column 땅을 밟고 길을 걷자
- 10 Special Seoul 서울을 걷다
- 14 Special UOS 강촌에서의 1박 2일

시대사

- 18 당신이 있기에 화학공학과 이종범 교수
- 21 UOS 강의실 융복합 강의
- 24 UOS 탐구생활 여학생 ROTC
- 26 UOS 체험기 외국인 유학생 인터뷰
- 28 나를 키우다 자전거동아리 TUBE
- 30 시립대 너머 대만국립정치대

서울시립대

- 32 UOS 함께하다 2018 서울시립대 비전
- 34 UOS 재능기부 콘서트 Harmony
- 36 UOS 사회봉사 공공의료교육연구위원회
- 37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시립대와 함께라면 캠페인
- 38 기부자 인터뷰 유태승 총동창회장(환경원에 7)
- 40 모교사랑 김기동 동문(경연 82)
- 42 UOS 헤드라인 조선일보-QS 평가
- 44 UOS News

도시의 길모퉁이를 걷다  
 가장 작은 풍경을 만나다.



작은 길 하나,  
 땅 한 조각에도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법인데

빌딩 숲 위에  
 문명의 타잔이  
 되어버린 우리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있다.

도시의 삭막함에도  
 땅의 힘으로  
 길 한 모퉁이  
 희망의 꽃을 피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자.



104년 만에 찾아온 가뭄,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마까지

올 해 한강은 그렇게 자연의 심술을  
온 몸으로 받아내며 여름을 맞았습니다.

그런 혹독한 신고식이 있어서 일까요?  
이 여름, 우리에게 시원함을 안겨주는 한강이  
더욱 반갑게 느껴집니다.

서울에 찾아온 여름,  
그 중심에 한강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숨이 있고, 거닐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있는 곳.

희색빛 빌딩숲 사이에서  
산의 녹음과 바다의 푸름까지 선사하는  
한강은, 도시 서울이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도시의 가치를  
창조하는 대학 서울市립대.  
우리는 市의 근본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도시를 바라보려고 하였습니다.  
도시의 근간은 땅이고 그 땅위에 사람이 다니는 길,  
그 본연의 모습을 찾아 본 것이지요.  
건축학부 교수님의 땅과 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아직까지 본래의 땅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통의동과 부암동을 찾아가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대학의 이름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강촌수련원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알았습니다.  
서울市립대가 추구하는 도시과학은 '조화'와 '보존'에 있다는 것을...

고향을 떠나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살았던 지난 세월 동안 '땅'과 그 위에 세워진 '길'은 항상 기억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던 화두였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다. 개발과 성장 중독증, 요란하고 알뜰한 디자인이 묘하게 결합된 도시를 뒤돌아보자는 것이다. 고층건물 꼭대기에서 내려가 땅을 밟고 길을 걸으며 문화가 공존하는 중간지대를 탐험해 보자.

## 건물에서 내려와 땅을 밟자. 길을 걸어보자

건축학부 김성홍 교수

### 삶은 길 위에서 흐른다

한 인간이 일생 동안 오래 머무르는 곳을 순위로 매긴다면 첫째는 일터, 둘째는 집, 셋째는 길일 것이다. 아침에 일터로 가기 위해,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길이다. 재택근무로 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대부분은 길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간다. 노점상과 택시운전사도 길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 길은 정치공간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임금의 종로로 걸어 나가 백성의 삶을 보듬었다. 죽음의 예식을 치르는 공간도 길이었고, 승리를 축하하는 행렬도 길을 따라 벌어졌다.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이 가장 먼저 나서는 곳이 길이고, 분노와 항거, 열광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분출되는 곳도 땅위의 길이었다. 또한 길은 상업공간이다. 옛 상인들은 제 몸보다 몇 배나 큰 짐을 이고 엄동설한에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넜다. 그들에게 길은 유유자적 거니는 곳이 아니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생존의 현장이었다.

### 길은 나와 세계가 만나는 곳

이러한 길은 거미줄처럼 엮여 연결망이 된다. 중세 유럽의 보부상이 다니던 길은 대륙 내의 상권을 잇는 안전한 도로망이 되었다. 마차가 자주 다니던 길은 포장되었고, 연결망의 거점들은 대도시로 성장했다. 알타이 산맥을 넘어 동유럽에 이르는 거대한 몽골제국도 초원을 질주했던 말의 궤적으로 연결되었다. 칭기즈칸은 이 망을 이용해 제국의 곳곳에 신속하게 전령을 하달했다. 온라인 통신망의 전신이다. 무엇보다 길은 나와 세계가 만나는 통로이다. 집이 도시를 향해 드러나는 곳, 도시와 집이 맞닿는 곳, 무목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 길이다. 비록 말을 건네지는 않더라도 길 위에서 스쳐 지나가며 서로의 모습, 사고방식, 문화적 암호를 공유한다. 길을 없애면 소통의 공간, 같음과 차이를 느끼는 장소, 기쁨과 분노를 표출하는 마당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김성홍 교수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성홍 교수는 2006년 미국 워싱턴주립대 폴브라이트 연구교수, 2007~2009년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연구처장·산학협력단장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도시 건축의 새로운 상상력』, (2009), 『On Asian Streets and Public Space』(2010, 공저), 『길모퉁이 건축 : 건설한국을 넘어서는 희망의 중간건축』, (2011) 등이 있다. Homepage \_ <http://sonomad.tistory.com>



### 길은 땅의 가치를 말해준다

길의 가장 큰 역할을 말하자면 바로 땅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길과 어떻게 만나는가에 따라 땅의 가치가 결정된다. 실상 서울 같은 초고밀도 도시에서 건축물의 가치는 창의적 형태나 혁신적 기술보다는 땅값에 좌우된다. 심지어 재개발을 기대하는 곳에서는 건축물의 가치는 거의 인정되지 않고 땅값만 계산한다. 이렇듯 길이 없는 대지는 눈먼 땅, 즉 맹지가 된다. 건축가가 대지에 집을 짓고 그 집들이 모여 입체적인 길이 완성된다. 큰 건축이 바로 도시이고, 작은 도시가 곧 건축이다. 도시 건축을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 어떤 길은 견고 싶은 길이 되고, 어떤 길은 황량한 곳이 된다.

### 이탈리아 비첸차의 건축과 길

이탈리아 비첸차의 휘어진 길이 지붕만 덮이면 실내처럼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길과 건물 바닥의 높이 차가 없기 때문이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만나는 중정과 열주 뒤의 방들은 계단이나 문턱이 없어 길과 높이가 거의 같다. 둘째, 집과 길이 만나는 방식이다. 우리의 전통건축은 길과 직접 만나지 않는다. 마당 한가운데 집이 놓이기 때문에 바깥과 맞대는 것은 보통 담장의 몫이다. 까치발을 해야 들여다보이는 집도 있고, 아예 높은 담으로 에워싸여 안이 보이지 않는 집도 많다. 반면 비첸차의 건축은 길과 직접 대면한다. 서양건축 도면 중에는 건물을 겹쳐 칠한 부분을 '상'이라 하고 빈 곳을 '배경'이라 부르는 도시평면도가 있다. 조각칼로 도려낸 고무판을 인쇄한 판화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첸차의 도시평면도는 상과 배경을 서로 바꾸어도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돌의 크기와 구조가 비슷하다. 지중해에서 발트 해에 이르는 유럽 전역에는 이처럼 건축(상)과 길(배경)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역사도시가 많다.

### 서울, 공동블록과 골목길이 공존하는 곳

그렇다면 서울은 어떤가?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도시 미관에 대한 시민의 의식 변화와 서울시가 추진했던 청계천 복원이 맞물리면서 육교가 철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길의 주인은 자동차다. 외국인에게 가장 자랑할 만하다는 사대문 안 보행의 거리인 명동에서 인사동까지 걸어본 사람이라면 길을 걷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데 공감할 것이다. 왜 그럴까? 서울 도심은 유럽의 도시처럼 작은 블록이 규칙적으로 모여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길, 종로를 보자. 현재 종로타워 뒤 블록은 종각을 기점으로 동서 길이는 380m, 의정국로를 따라 남북길이 540m인 거대한 삼각형이다. 격자형 도시계획으로 유명한 미국의 동부 도시 사바나의 2.5배, 서부 도시 샌프란시스코의 8배의 크기다.

비첸차의 도시평면도는 상과 배경을 서로 바꾸어도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돌의 크기와 구조가 비슷하다. 지중해에서 발트 해에 이르는 유럽 전역에는 이처럼 건축(상)과 길(배경)이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역사도시가 많다.



이탈리아 비첸차 ©김성홍

조선시대부터 도시조직의 골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서울은 이처럼 거대블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강북의 도심뿐 아니라 1970년대 도시계획으로 만든 강남지역도 마찬가지다. 당시 강남과 강북을 잇는 다리는 한남대교와 영동대교 두 곳 밖에 없었고 이 사이를 큰 덩어리로 나누는, 즉 공동블록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블록 사이에서도 이면도로는 있어야 했고, 그 길에서 서울만의 골목길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 사람과 문화가 있는 길을 그린다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 사회가 '길'을 말하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올레길'이 뜨자 전국의 등산로도 하나둘씩 '올레길'로 바뀌고, 시골의 논두렁 발두렁과 마을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의 명동거리와 인사동길, 압구정동 로데오거리와 청담동거리를 제치고 떠오른 신사동 가로수길, 서교동 홍대 앞, 삼청동길, 반포동 서래로는 길 이야기가 나오면 신문과 방송에 단골로 등장하는 곳들이다. 가로수길은 패션과 디자인, 홍대 앞은 언더그라운드 성지, 삼청동길은 전통과 현대의 공존, 서래로는 프랑스로 차별성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반면, 70여 년 동안 한국 최고의 쇼핑 거리로 군림하던 명동은 1970년대 이후 강남 개발과 함께 빛이 바래졌고, 외국인관광객의 단골명소였던 인사동은 상업 자본에 밀려 골동품 거리의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10여 년 전 한국 최고의 상권으로 불렸던 로데오 거리는 활기를 잃고 그 명성을 가로수길에 내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가로수길, 홍대 앞, 삼청동길도 자본의 힘에 점점 잠식당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서울이라는 거대도시 속에 매력 있는 길이 그만큼 사라져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건축가가 대지에 집을 짓고 그 집들이 모여 입체적인 길이 완성된다. 큰 건축이 바로 도시이고, 작은 도시가 곧 건축이다. 도시 건축을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 어떤 길은 견고 싶은 길이 되고, 어떤 길은 황량한 곳이 된다.

길마다 서려있는 문화와 길과 길로 이어지는 변화의 흐름은 고요히 움직이며 경이로운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선사한다. 그것이 시대의 변화와 경제의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사라지고 변질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래의 모습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되는 '개발'보다 보존하고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개발'될 수 있는 땅과 길을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길을 걷는 이유이고, 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이다.



## 당신이 미처 알지 못한 그 거리, 그 골목의 온도

서울 통의동 & 부암동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아직까지 본래의 땅의 모습을 간직한 곳, 길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당신이 미처 알지 못한 골목이 있을까? 본래의 정체성을 간직하면서 빈티지 문화거리로 불리는 통의동과 부암동을 찾아가보았다. 낮은 담과 퇴색한 벽, 담장 아래 핀 예쁜 꽃들이 여유와 조화로우움을 느끼게 하는 곳. '도시'보다 '마을'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통의동과 부암동을 걸으며 따뜻하고 고즈넉한 도시를 느껴보자.

### 통의동, 도심 속 한적함과 여유를 즐기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를 나와, 그대로 직진해서 조금 올라가면 '후지필름'과 카페 'COCCOIN' 사이에 작은 골목이 눈에 들어온다. 그곳이 바로 '브릭레인 스트리트'라 불리는 통의동의 시작을 알리는 골목이다. 이 길을 따라 거닐다 보면, 마치 가정집처럼 고요하게 숨어있는 예쁜 카페와 식당, 그리고 한책방, 한옥마을을 만나게 된다. 만약, 신사동이나 삼청동과 같이 줄지어 늘어난 가게들 사이에서 풍겨져 나오는 이색적인 온도와 화려함을 기대했다면 통의동의 첫인상은 다소 실망스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통의동의 골목골목을 기웃거리다 보면 도심 속에서는 느끼기 힘든 한적함과 여유로움에 어느새 꼭 빠져든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사동의 여러 아트갤러리들이 상업화된 도심 속 분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제2의 장소로 모색한 곳이 바로 이곳 통의동이다. 많은 사람들과 각종 기념품 가게들로 북적거리거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건물과 간판 사이의 담백한 '여백'이 기분좋은 곳이다. 낮은 담을 따라 길을 안내하듯 자리 잡은 담쟁이 넝쿨은 청량한 느낌을 선사하기에 충분하고,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은 간판 아래의 갤러리들은 마치 보물을 숨겨놓은 듯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 여백이 주인인 낮은 서울, 서촌한옥마을

통의동의 한옥마을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보물 같은 곳이다. 일명 '서촌한옥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북촌한옥마을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효자로를 따라 부암동까지 이어지는 서촌한옥마을의 오래된 이발소와 방앗간, 정겨운 구멍가게들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경복궁의 영추문을 지나 맞은 편 골목에 위치한 사진 갤러리 '류가현'은 낯설고도 소박한 한옥의 모습으로 수줍은 듯 골목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통의동에서 꼭 한번 둘러봐야 할 곳으로 꼽힌다. 류가현의 오른쪽 한옥 안 카페는 산책으로 지친 두 다리를 잠깐 쉬게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으로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예쁜 사진을 추억으로 남기는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서촌한옥마을의 골목을 포함한 통의동의 맛집이나 카페, 갤러리들은 매주 월요일이 휴무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북적이는 사람들 대신 낮은 담과 정겨운 골목길을 여유롭게 누비는 길고양이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참치 캔을 들고 길고양이들에게 가만가만 다가가면 어느새 대 여섯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먹이를 받아먹곤 하는 풍경은 통의동의 또 다른 매력이다.





**추천영소를 찾아서**  
목화식당

새하얀 간판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것이 인상적이다. 후지필름 옆골목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해 있고, 통의동을 찾아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정식 식당으로 꽤 유명세를 탄 곳이다.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비교적 저렴하게 맛볼 수 있으며, 통의동의 한적함을 맛볼 수 있다.

**가까린**

가까린은 위탁 한책방이다. 회원가입 후, 자신의 책이나 물건 등을 위탁판매할 수 있다. 예술 디자인 관련 서적이 많고 일반 서적과 문구, 엽서, 화분 등 여러 가지가 함께 판매되는 재미 있는 곳이다.

**대림미술관**

이번 4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스칸디나비아 가구의 거장 핀 울(Finn Juhl, 1912-1989)의 가구 디자인 전시가 열린다. 세계적인 의자 컬렉터인 일본의 오다 노리츠구(Oda Noritsugu, 1946-)의 컬렉션을 감상할 수 있다.

**더 많은 곳**

이외에도 가수 윤건이 운영하는 '마르크의 다락방'과 'mk2' 등 카페 내의 갤러리와 디자인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즐비하다. 대부분의 갤러리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부암동, 산책로를 따라 만끽하는 유틘트와 즐거움**

통의동을 보고 난 후, 종로구의 또 하나의 '마을'인 부암동으로 이동해보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복궁역 3번 출구에서 부암동주민센터로 가는 버스를 타면 약 20분 내에 쉽게 부암동 초입에 다다를 수 있다. 북악산과 인왕산, 북한산에 둘러싸여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부암동은 높은 건물하나 없는 곳이었지만, 최근 이곳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아기자기한 카페나 갤러리 등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스튜디오 카페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카페, 바느질 소품을 만들거나 주인장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카페 등 이곳 카페들은 저마다 개성이 넘쳐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또한 부암동 특유의 좁은 골목길은 아날로그적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름에서부터 달콤함이 느껴지는 팬케이크 카페 '쇼트케이크'를 따라 올라가면 골목 사이에 자리 잡은 사진 출사지로 손색이 없을만큼 예쁜 카페 '사이'가 있다. 그 길로 쪽 올라가다 보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옛 정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동양방앗간'이 보인다. 동양방앗간을 사이로 두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 왼쪽을 따라 내려가면 부암동의 또 다른 명소인 환기미술관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산책로가 펼쳐진다. 맑은 공기와 푸른 자연에 둘러싸여 걷다보면 '이곳이 과연 서울 도심 한가운데가 맞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산책로 곳곳에는 벽화라고 하기엔 조금 무색한 '벽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 보는 이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준다. 조금 더 힘을 내라는 표시로 길을 안내해 둔 곳도 있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진감래'라는 커다란 글귀도 눈에 띈다. 이 벽그림을 마주하고 나서,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산책로를



오르면 곧 이어 윤치가 넘치는 '산모퉁이' 카페가 나타난다. 드라마 '커피프린스에서 이선균의 작업실로 나와 명소가 된 '산모퉁이' 카페는 부암동 산책길 중 꼭 한번 들러야 하는 명소 중 하나다.

**또 하나의 그림을 펼쳐 보이는 서울 성곽길**

부암동에서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곳이 바로 서울 성곽길이다. 땅거미가 지는 시간이 되면 부암동에서 바라보는 서울 성곽길은 하나의 그림이 된다. 그 길과 높은 산길을 비추고 있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조명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서울 성곽은 서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성으로 북악산, 낙산, 남산 그리고 인왕산을 거점으로 코스가 나누어져 있다. 부암동에서 오르는 길은 창의문을 거쳐 백악마루, 청운대, 곡장, 숙정문, 말바위 쉼터 코스로 2시간 정도 소요된다. 팔각정을 지나 성북구 경계까지 이어지는 3.4km 구간의 산책로는 도롱뇽이 산다는 백사실 계곡이 자리잡고 있는, 서울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계속 기다란 성곽을 따라 길을 걷다보면, KBS '박2일'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유명세를 탄 '총알 박힌 나무'를 비롯해 2백 8종의 식물과 8종의 나무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을 복잡한 서울 한 복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랍지 않은가.

2012년 여름 새로운 침과 다짐이 필요하다면, 한번쯤은 통의동과 부암동의 골목길을 걸어보자. 복잡한 서울의 중심인 종로에 위치하고 있지만, 바쁜 도시의 삶과는 상반된 고즈넉함을 간직하고 있는 이 곳은 당신에게 여유로움과 새 힘을 선사해 줄 것이다.



**추천영소를 찾아서**  
쇼트케이크

부암동 주민센터 맞은 편 카페인 '쇼트케이크'는 수입 소품가게다. 아기자기한 주방용품을 구경하고 난 후 구입이 가능하며 컵케이크로도 유명하다. 길 건너편에서 사진을 찍으면 예쁜 그림을 만들 수 있다.

**환기미술관**

故 김환기(金煥基)의 예술품을 보존·연구·전시하는 미술관으로 1992년 11월 5일에 개관하였다. 김환기 작가의 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젊은 작가들을 위한 다양한 기획전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아트 프로젝트와 참여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현대 미술관이다.

**웍스 갤러리**

이미 명소가 된 '산모퉁이'나 '자하 손만두', 'cheers' 외에도 볼거리가 가득한 부암동 산책길 언저리에 숨어있는 웍스갤러리. 환기미술관에서 나오는 뒷골목에 위치해 있다. 오른쪽에는 카페가 운영되며 웍스를 직접 제작하는 모습이 오픈되어 있어 잠시 멈춰 서서 보는 것도 새로운 볼거리이다.





# 강과 산이 맞닿아 있는 그 곳, 그 땅의 소리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수련원

하늘이 비를 머금었는지 잔뜩 울상이다. 하지만 긴 가뭄의 끝을 알리는 비소식이어서일까? 그마저도 반가운 6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는 지금 강촌에 있다. 강촌 지역의 새로운 워크숍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곳. 바로 서울시립대학교 강촌수련원에 있다.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올 여름 천혜의 자연을 누리보자.



## 출발! 물과 숲이 만나는 그곳으로

강촌수련원은 앞에는 북한강이 흐르고 뒤로는 검봉산이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에 위치해 있다. 복선전철이 개통되어 굳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백양리역(엘리시안 강촌역)에서 도보로 20분, 강촌역에서는 택시로 5분 정도면 도착한다. 강촌에서 수련원으로 가는 길에는 강촌유원지가 위치해있고 유원지를 지나면 라이더들에게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자전거 도로가 펼쳐진다. 이 자전거 도로 중간에 수련원으로 올라가는 길이 보인다. 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차나 자전거로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수련원 입구에는 불편함 없이 주차할 수 있는 아담한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는 농구와 족구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이 위치해 있다.

## 자연과 동화된 한 폭의 그림 같은 집

강촌수련원은 목조 건축의 대가인 조남호 동문의 작품이다. 그래서 일까? 건물 전체가 주변의 자연은 물론 건물 사용자와의 조화까지 고려한 모습이 돋보인다. 산의 형태를 따라 길쭉하게 숙소 건물이 배치되어있다. 그 옆의 식당·강의실 등이 있는 연수동 내부는 목재로 되어있는데,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도록 채도를 낮췄다. 이러한 결과 강촌수련원은 2011년 한국 최고의 집 Best 7에 선정되며, 건축학적 아름다움을 인정받았다. 직접 와보니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다. 자연과 동화된 곳. 어느 노랫말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다면 바로 이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련원 안에 들어서자 최의경 원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간단한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강촌수련원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르셨다.

“이곳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기 다른 색채를 뽐내고 있어요. 특히 야생화가 예뻐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들르기도 하지요,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만발한 꽃들을 볼 수 있었을 텐데...”라며 주변 자연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

최 원장님은 이곳의 이러한 특징을 살려 야생화 콘테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찍은 야생화 사진을 받아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자연이 준 아름다움도 나누고 방문하신 분들께 강촌수련원에서의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요.”



### 오시는 길 안내

- 위 치 :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812-39(강촌리 641-4)
- 자가용 : 서울 → 청평 → 가평 → 엘리시안강촌 입구 → 강촌수련원
- 전 철 : 경춘선 백양리역(엘리시안강촌역)에서 하차(도보 20분) 강촌역에서 하차(택시 5분)





예약 문의 안내

- 인터넷접수 : 온라인예약신청(rivervalley.uos.ac.kr) → 이용요금납부(예약 후 48시간 이내) → 예약완료
- 유선 접수 : 상담(033-262-3155~6) → 이용허가신청 → 이용요금납부(예약 후 48시간 이내) → 예약완료
- 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
- ※ 이용신청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강촌수련원 주변 관광지

- 검봉산 : 남쪽으로 백양리, 북쪽으로 북한강을 두며 강 건너편에는 삼악산이 있다.
- 구곡폭포 : 봉화산 기슭에 있는 폭포. 아홉 굽이를 돌아서 떨어지는 폭포라 하여 구곡폭포라고 불린다.
-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 골프장과 스키장 이외에도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종합 레저단지이다.
- 남이섬 :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에 있는 남이섬은 경관이 아름다워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 애니메이션 박물관 : 총 1만 여점의 애니메이션 관련 소장품과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애니메이션 박물관이다.

소박한 내부 그리고 함께 음식을 만드는 즐거움

원장님과 인사를 마친 후 강촌수련원 살림꾼 최승영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수련원 숙소 내부로 들어왔다. 강촌수련원은 숙소 각각이 독립된 공간이면서 또한 자연스레 연결되어 있다. 16평형의 양실(버치하우스)이 9실, 14평형 규모의 한실(오크하우스)이 6실로 총 15실이며 모두 복층으로 지어져 색다른 느낌을 준다. 방마다 달려 있는 아담한 티 테이블은 천편일률적인 베란다가 줄 수 없는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강촌수련원은 전자레인지, 대형냉장고, 각종 조리도구가 완비된 공동취사장을 갖추고 있어 이용객들의 반응이 더 없이 좋다. "가족 단위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은 강촌수련원 만한 곳이 없어요. 오신 분들 모두 만족하고 계십니다. 특히 주변 펜션과 비교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만한 시설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크게 만족해 하세요. 서울시립대인들이 힘을 합쳐 세운 강촌수련원인 만큼 학생, 교직원은 물론 동문들에게도 50% 할인 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각 사각 땅의 소리를 들으며 산책하다

늦은 금요일 오후, 주말을 즐기러 수련원을 찾는 차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다. 일찍 도착한 손님은 이미 짐을 풀고 아이들과 주위 경관을 구경하는 모습이 간간히 눈에 띄었다. 강촌수련원의 또 하나의 자랑은 등산로다. 강촌수련원을 시작으로 검봉산, 문배마을 그리고 구곡폭포까지 약 4시간 코스로 등산과 트레킹을 즐길 수가 있다. 보통 이용객들은 1시간 30분 코스인 검봉산 코스를 즐긴다고 한다. 마침 등산로에서 아이와 함께 구경하고 있는 송인욱 씨(서울 암사동) 가족과 장용환 동문(강일동, 도시과학대학원 건축공학) 가족을 만났다. 아이들이 유치원 친구들로 알게 된 인연으로 여행을 계획했는데, 장 동문의 추천으로 이곳을 찾게 되었다고 했다. "제가 학과 모임으로 이곳을 몇 번 찾았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싶어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여유롭게 자연을 즐기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송인욱 씨가 동의를 한다.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건축물도 친환경적으로 잘 지어서 무척 맘에 듭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주변에 아이들과 물놀이 할 수 없는 것인데 나중이라도 그런 시설이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추억이 있는 강촌의 밤은 아름답다

여행의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바비큐 파티다. 바비큐 준비가 한창인 공동취사장을 찾으니 앞선 장 동문의 가족은 물론 남양주시노인복지관에서 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음식 준비가 한창이다. 고기를 굽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두의 얼굴에는 설렘과 행복함이 한껏 묻어난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혹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재료를 기분 좋게 나누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다. 특히 남양주시노인복지관에서 워크숍을 온 김문자 할머니(남양주시)는 서울시립대에서 강촌에 이런 곳을 만들었는지 몰랐으며 더 많이 홍보했으면 한다고 하셨다. "보통 캠핑을 가면 그 뒤처리가 불편한 법인데 이곳은 잠자리부터 취사까지, 시설이 잘 되어 있어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막내아들이 서울시립대 제어계측공학과를 나왔는데 자기네 학교에 이런 수련원이 있는지 잘 모르더라요.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시설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본격적인 바비큐 파티가 시작되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를 사뭇했는지 하늘에서는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운치를 느끼게 하는 곳이 바로 이곳 강촌수련원이다. 강촌, 그 이름만으로 아련한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곳이다. 많은 젊음이 이곳에서 서로 하나가 되었고 추억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립대 강촌수련원에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각사각 밟히는 땅의 질감들이 더할 나위 없이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곳. 도시의 길과 또 다른 자연의 길을 느낄 수 있는 곳. 우리는 지금 강촌에 있다.



서울시립대학교를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들,  
바로 시대人입니다.

암 정복에 획기적인 연구결과를 내신 교수님, 늘 새로운 강의로 보다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자 노력하시는 교수님들...  
이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잘 가르치는 대학 서울시립대'가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생생한 젊음들도 만났습니다. 서울시립대 최초 여학생 ROTC,  
세계에서 우리를 찾는 글로벌 친구,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을 실천하는 친구들의  
씩씩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  
이러한 시대人이 있기에 시대를 앞서가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가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 ‘RAN 마이크로 스펀지’로 암 정복을 꿈꾼다

화학공학과 이종범 교수



암은 여전히 인류가 넘어야 할 벽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암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만약 암을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인류의 진화는 한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암 치료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이 있다. 바로 우리 대학 화학공학과 이종범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그가 개발한 ‘RNA 마이크로 스펀지’가 바로 암 치료의 열쇠다.

“이제껏 높은 장벽으로만 여겨졌던 암치료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것이나 다름없죠. 이제까지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이 보이는 것 같아 참 뿌듯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인류의 지식과 기술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여념이 없는 대한민국의 많은 학자들. 우리 대학에도 이러한 노력으로 각 학계에서 새로운 기술의 지평을 연 학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 대학 화학공학과 이종범 교수도 그 중 한 사람. 이 교수는 얼마 전, 암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보핵산(RNA) 마이크로 스펀지’에 관한 연구결과로 학계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바 있다.

## ‘RAN 마이크로 스펀지’로 암 정복을 꿈꾼다

세포 속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중간물질인 리보핵산(RNA)이 반복적으로 복제가 돼 여러 가닥을 이루면 자기조립 과정을 거쳐 구멍이 송송 뚫린 스펀지 모양이 만들어진다. 한국과학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국내 연구팀은 최근 기다란 에스아이아르엔에이(siRNA)<sup>2)</sup> 가닥이 스스로 뭉치는 성질을 이용해 ‘RNA 마이크로 스펀지’를 만들어 세포 안에 siRNA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종범 교수다. 이 교수의 연구팀이 이번에 만들게 된 RNA 마이크로 스펀지는 21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이뤄진 siRNA 염기서열 50만개가 지름 2마이크로미터( $\mu\text{m}$ ·1 $\mu\text{m}$ 는 100만분의 1mm)의 공에 들어 있는 형태다. “RNA는 전기적으로 음성이어서 양성을 띤 고분자를 넣어주자 지름이 10분의 1수준인 200나노미터( $\text{nm}$ ·1 $\text{nm}$ 는 1000분의 1mm)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암에 걸린 실험쥐에 넣어주자 기존 방식보다 1000분의 1정도 양으로도 똑같은 치료효과가 나타났던 것이지요. 앞으로 고분자를 첨가하지 않고 순수한 RNA만으로 50나노미터까지 지름을 줄일 수만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약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한다. 물론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인류가 아직 ‘암’이라는 질병을 정복하지 못한 점을 생각한다면, 이번 연구결과는 암 치료에 있어 희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연구팀의 논문은 유명 과학저널 <네이처> 자매지인 <네이처 머티리얼스> 4월호 표지논문으로 결정됐으며, 세계적 업적만을 게재하는 매사추세츠공대 누리집의 ‘오늘의 이슈’에도 소개되는 등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 UOS에서 새롭게 키워낸 푸른 꿈

암 치료에 있어 새 지평을 연 이종범 교수는 서강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후, 미국에 위치한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 교수가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여름부터다. 1년 남짓 시간 동안 우리 학교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게 됐을까. “교수님들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열의도 대단합니다. 학과 간의 교류가 활발한 만큼 학문 간의 교류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동안 연구와 강의를 함께 하며 제자들을 키워낸 그는 우리 대학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가 생각하는 대학의 조건 중 하나는 바로 ‘가능성’.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학은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서울시를 대표하는 대학인만큼 다양한 전공분야와 유기적인 대학 구성원들의 관계는 그가 우리 대학을 제일로 꼽는 이유 중 하나다.

올해 37세의 나이로 젊은 층에 속하는 그의 탄탄한 열정은 수업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교과서의 내용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다. 늘 일상과 업무 현장에서와 맞물려 있는 전공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학생들과 함께 공유하며, 살아 숨 쉬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쉽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단순히 보고 외우기만 하는 지식은 변화무쌍한 지금의 산업현장에서는 힘이 모자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학생들이 기존에 배웠던 틀과 범위에서 벗어나 화학공학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단순한 이론을 알려주더라도 실생활에서 혹은 연구현장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빚대어 알려주면 더 잘 이해가 되죠. 학생들도 더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DNA를 연구하는 제가 이제 ‘서울시립대인’이라는 DNA를 가지게 되었어요. 서울시립대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강의하고 연구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교수에 앞서 멘토로서  
 인생 선배를 꿈꾸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해당분야의 연구 특성상 늘 상용화의 문제에 부딪히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이뤄내는 연구결과는 정말 최고로 짜릿합니다” 천상 과학자답게 말하는 이 교수. 마지막으로 그는 RNA와 DNA 분야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관련 연구 과제를 더 많이 수행할 수 있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또한 그러한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우선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촬영을 위해 들린 실험실,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반갑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서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가 없었다. “지금처럼 제자들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형처럼 오빠처럼, 제자들이 바라는 미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되고 싶어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가득 번져나갔다. “DNA를 연구하는 제가 이제 ‘서울시립대인’이라는 DNA를 가지게 되었어요. 서울시립대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강의하고 연구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대학과 함께 해온 지난 1년의 시간을 바탕으로 그의 앞길에,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앞길에 더 많은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각주) 1) 생물은 세포핵 속의 디옥시리보핵산(DNA)에 찍어 있는 유전정보를 읽어 단백질을 만들어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 유전정보를 전달하는 중간물이 바로 ‘리보핵산(RAN)’이다.  
 2) RAN 중에는 ‘짧은 간섭 RNA(siRNA)’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RNA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사영되는 것과는 달리 siRNA는 거꾸로 특정 단백질의 생산을 억제한다. 이를 이용하면 잘못된 유전자의 발현을 막아 이 때문에 발생하는 암 등의 유전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하나의  
 시선이 아닌**



**서로의  
 시선으로**

**도시공학과 & 조경학과 융복합 강의**

서울시립대가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된 이면에는 열과 성을 다하여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었다. UOS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커리큘럼 또한 특별한 강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ACE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된 도시공학과 유석연 교수와 조경학과 김아연 교수의 합동 수업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도시의 과거를 알아야  
도시의 미래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도시의 공간을  
다루는 데 있어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융복합교과목이란?”**

우리가 이번에 찾은 도시공학과 유석연·조경학과 김아연 교수의 '사이트플래닝' 강의는 작년(2011년)에 개발된 전공융복합과목이다. 2010년 우리 대학은 교과부 주관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이하 ACE)'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ACE 사업의 일환인 '전공교육과정 선진화'를 위해 전공융복합과목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10년 <통합적 사고와 리더십>, <IT융합응용>, <전근대동아시아국제관계사>, <바이오수학> 등 14개 융복합과목을 개발, 2011년에는 <창업경영사례연구>, <도시재생과공간정보> 등 10개의 과목을 추가로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이러한 융복합과목을 통해 하나의 문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시각을 접해봄으로 사고의 지평을 넓히고 학생들의 '창의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공간환경의 완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생각합니다”**

취재팀이 찾아간 날은 융복합 과정 '사이트 플래닝'의 1학기 마지막 강의시간. 합동수업이다 보니 총 3시간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앞서는 도시공학과 수업을 하고 이제 조경학과 수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다. 특이한 점은 앞서 강의를 진행한 도시학과 유석연 교수도 김아연 교수의 강의를 함께 듣고 있었다. 모든 강의가 끝난 후 그들을 만나보았다.

**서울시세계사** 1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러한 융복합강의를 계획하신 계기가 있다면요?

**유석연 교수** 우리가 흔히 도시설계를 배우는 학문은 도시, 조경, 건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재미있는 건 이 세 과목이 모두 디자인이고 결국 공간환경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무척 밀접한 학문인데 실상은 이론 수업이든 설계수업이든 다 따로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같이 일하고 있고, 같이 일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세 가지 학문이 다르지 않고 '공간환경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김아연 교수** 이번 학기 과목으로 '사이트 플래닝'을 정한 것도 그러한 이유예요. 흔히 '단지 계획'이라고 일컫는 이 과목에 도시분야, 건축분야, 조경분야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세 학과 모두 커리큘럼에 사이트 플래닝이 있는데 같은 과목을 굉장히 다르게 배우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시선이 아닌 서로 다른 시선도 익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올바른 가치판단을 위해서는 서로의 교류가 필요해요”**

사실 유석연 교수와 김아연 교수 모두 각자의 전공 분야만을 익히고 사회로 나온 이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실제 필드에서 일을 할 때 소통이 되지 않는 경험을 무수히 하였다.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는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던 것이다.

**서울시세계사** 말씀을 듣고 보니 도시과학분야에선 꼭 이러한 융복합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아연 교수** 보통 타 대학에서는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조경학과들이 이과대, 공대, 농대로 나뉘어져 단과대학들이 모두 달라요. 그런데 저희 서울시립대에서만 유일하게 이 세 가지 학문이 도시과학대학이라는 하나의 단과대학에 속해 있어 이러한 강의가 가능했습니다.

사실 지금 건축학과는 ISO인증 때문에 커리큘럼이 너무 빡빡하게 짜여 있어 함께하지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건축학과와 훌륭한 교수님들과 함께 강의를 하고 싶어요.

**유석연 교수** 저는 정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학제가 나누어지다 보니 우리가 학생들에게 너무 테크니컬적인 것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철학적 기반이 전혀 없는 거지요. 도시를 설계함에 있어 올바른 가치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것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그 도시의 역사적 배경, 인문학적 태도를 가지고 보다 깊고 넓게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도시의 과거를 알아야 도시의 미래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도시의 공간을 다루는 데 있어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이들이 인터뷰 내내 강조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번 융복합 과정이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첫 걸음이 되었다.

**서울시세계사** 교수님들도 처음 하는 강의였으니 수업 준비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요?

**김아연 교수**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먼저였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구분돼 있었거든요. 도시공학과에서 전체 사업의 배경 및 가치를 연구해서 넘겨주면 건축학과에서 건물을 짓고 조경학과에서 그 건물을 짓고 난 후 조경을 조성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는 고정관념이요. 이를 깨기 위해 실제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위주로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업이 엑스트라 강의이다 보니 저희는 학과 수업 외에 따로 준비를 해야 해서 수업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유석연 교수** 옛날에는 땅을 다루고 도시를 세우는 모든 것이 하나의 사회라는 테두리에 이루어집니다. 엥겔스의 자본론을 읽어보지 않았으면서 도시건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래서 전 도시의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책을 찾아보고 읽어보라고 잔소리도 많이 했어요. 수업 수준을 높이는 대신 설명을 더욱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답사도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된 것이 아쉽습니다. 앞서 김 교수님 말씀대로 수업시간 조정과 더불어 학교 측에서 실질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말과 사고가 일치해야 문제해결 능력이 생깁니다.”**

처음 시도했던 것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이 두 여교수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수업이 1회성으로 끝난다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분명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었다.

**서울시세계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도 준비하시지요?

**김아연 교수**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다음 학기에게 강의가 개설된다면 좀 더 발전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 경험을 봐도 그렇지만 강의실 안에서 암기 위주의 지식 습득은 금방 휘발이 됩니다. 만약 다음 학기에도 개설된다면 꼭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해결 능력입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답답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질문이 나오는 것이고 실전 감각도 쌓이게 되니까요.

**유석연 교수**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러했듯이 문답식으로 수업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디자이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너무 수동적이예요. 현장의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은 캐주얼하고 논리적이야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이 곧 생각입니다.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말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결국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강의 기회가 생긴다면 학생들에게 꼭 그러한 경험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 당차고! 씩씩하게! UOS 최초 여학생 ROTC를 만나다

원다슬 학생(생활체육정보 10) · 박찬형 학생(환경공학 10)

## 문무를 겸비한 여학생 ROTC

멋진 제복을 입고 당당히 대학 캠퍼스를 누비는 ROTC. 이제는 남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씩씩하게 걸음을 옮기는 여학생 ROTC의 '포스' 또한 만만치 않다. 우리 대학 최초의 여학생 ROTC. 그녀들은 '여자이기 때문에'라는 수식어조차 거부한다. '최초'라는 단어에 걸맞은 그녀들의 당찬 꿈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원다슬



박찬형

### 여학생 ROTC로서 대학을 다닌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남다른 동기가 있었나요?

**원다슬** 어렸을 때부터 꿈이 군인이었어요. 군인이라는 직업의 사명감이 바로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이 큰 매력을 느끼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어린 시절의 꿈을 늘 간직하고 살았는데 여학생 ROTC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죠. 광고도 저희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는 제게 권하셨어요. 네 꿈이었으니 한번 도전해보라면서 말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으니 마다할리 없었죠.

**박찬형**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경찰 혹은 군인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학창시절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에 쫓기다 보니 그런 꿈을 잊고 살아왔죠. 그렇게 대학생생활을 보내던 중에 여학생 ROTC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 선택에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다들 좋아하세요. 부모님과 교수님들도 모두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 길이 더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 ROTC로서 대학생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원다슬** 여자의 몸으로 잘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잘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힘들다기보다는 '어안이 병병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꿈꿔오던 일이 어느새 현실이 됐으니 말이예요. 주변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살짝 부담되기는 해요. '자랑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데, 좀 어색하고 쑥스럽기도 하고요.

**박찬형**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제게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정말 못했어요. 전 ROTC 생활을 해오면서 느낀 느낌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신기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라는 것도 경험해보고 말이죠.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어서 좋은 면도 있지만, 반면에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여학생 ROTC'라는 점 때문에 주위에서 관심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없었던 제도인지라 당연한 반응이긴 하겠지만, 조금은 자연스럽게 저희를 바라봐주셨으면 해요.

### 졸업과 동시에 임관식을 치루면 그때는 정말 군인이 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원다슬** 소위로 군생활을 시작한다고 해도 사실 제 마음은 여느 학생들과 다르지 않아요.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자신의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걱정은 되요. 제 꿈이라고 해서 도전했지만 이제 시작하는 자리에서 '이것이 나의 길이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제가 선택한 길에 확고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는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겪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찬형** 전 ROTC를 지원할 당시에는 임관 후 장기복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판단은 성급히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니까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후에 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 첫 여학생 ROTC로서, 앞으로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다슬** 정말 군인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꼭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이력을 쌓을 생각으로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가지고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군인의 꿈을 이뤄나가는 단계이기 전에 일반 대학생 신분으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박찬형**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꿈이 실현이 되든, 되지 않든 말이죠. ROTC가 되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한 후배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느꼈던 '최초'라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테니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 Dreams come true in Korea

외국인 유학생  
Nakagawa  
Ritsu(일본)와  
Chuluun  
Baatar  
Chimed  
Norov(몽골)의  
만남

처음엔 단순히 문화와 교육환경에 대한 호기심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나라, 한국. 하지만 지금은 제2의 고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넘치는 애정으로 가득한 이들이 있다. 바로 Nakagawa Ritsu(이하 리츠, 일본, 국어국문 12)와 Chuluun Baatar Chimed Norov(이하 침카, 몽골, 토목공학 10)가 그들. 이전 자타가 공인하는 '토종 한국인'으로 거듭난 두 사람을 만났다.

## 한국에 대한 관심이 서울시립대에 대한 열정으로

태어난 곳도, 생김새도, 성별도 모두 다르지만 이들이 고국을 떠나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같다. 바로 한국이란 나라에 너무 오고 싶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온 리츠 양은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보고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오고 싶어 어떤 학교가 좋은지 직접 다니면서 알아본 후 결국 서울시립대 국어국문과를 선택했다고. "전체적인 캠퍼스 분위기도 맘에 들고, 무엇보다 커리큘럼이 만족스러웠어요. 좋은 교수님들도 많고요. 평소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어학 쪽으로 공부하고 싶었던 터라, 주저 없이 국문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버디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지금은 학교에 친구도 많이 생겼고 덕분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아요." 한편 몽골에서 온 침카 군은 나름 짝지 않은 한국 유학생들로 이미 반 한국인이 되었을 정도로 한국말도 유창하고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한국으로 고등학교를 오게 된 건 전적으로 부모님 덕분이에요. 부모님께서 경기기계공고가 나라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유학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에게 적극 추천해주셨고 2007년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유학생에게는 다소 생소한 토목공학이라는 전공을 하고 있는 침카 군. "몽골은 국가기반시설이 아직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도로나 댐, 원자력 발전소 등의 건설기초가 토목공학이 될 수 있는 만큼 일부러 이 전공을 선택했죠. 나중에 취업 할 때도 가장 유리한 대학이 서울시립대라는 판단을 내려 학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침카 군의 고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 제2의 모국 한국, 그리고 나의 모교 서울시립대

이들의 한국생활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익숙지 않은 문화나, 생소한 먹거리 등이 처음엔 받아들이기 무척 어려웠다고. "처음에 공대에 입학했을 땐 군대같이 딱딱한 느낌을 살짝 받았지만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선배의 입장에서 서게 된 지금은 이런 문화가 마음에 들어요."

몽골은 바다가 없는 탓에 해산물을 접하기가 힘든데, 침카 군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해산물을 좋아하는 마니아라고. 리츠 양 역시 언어에 관심이 많아 한국에 왔지만 처음엔 부족한 한국말 탓에 많이 힘들었다.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지금은 누구보다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저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 한국에서도 국문과를 선택한 만큼 앞으로 사람의 심리와 언어의 관련성에 관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 차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더 연구해서 그 분야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침카군의 꿈도 역시 자신의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다.

"졸업 후엔 고국인 몽골로 돌아가 그 분야로는 유명한 전문가(Civil Engineer)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하철이나 고가도로 같은 국가기반시설을 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침카 군은 반값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제도를 갖춘 서울시립대야말로 이러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말한다. 각자 미래의 알찬 포부를 밝히는 침카 군과 리츠 양. 이들이 만들어내는 탄탄한 글로벌 파워야말로 서울시립대의 100년 미래를 밝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체적인 캠퍼스 분위기도  
맘에 들고, 무엇보다  
커리큘럼이 만족스러웠어요.  
좋은 교수님들도 많고요.  
버디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덕분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아요.



## 길을 달리다! 점음을 즐기다!

서울시립대 자전거 동아리 TUBE

자전거에서 빠지면 안 될 핵심적인 부품 중 하나가 튜브입니다. 'TUBE(Team Uos Bike for Enjoyment)'는 우리 대학에서 꼭 필요한 동아리로서의 입지를 견고히 하고,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자는 의미에서 지었어요. 자! 지금부터 TUBE와 라이딩을 함께해요. 이 여름 무더위를 날려버리자고요



## Team Uos Bike for Enjoyment!

### 우리는 튜비언(TUBE-ion)입니다!

TUBE는 2008년 창단해서 2010년 중앙동아리로 승격된 서울시립대 자전거 동아리입니다. 올바른 자전거 문화를 보급하고 심신의 건전한 단련 및 커뮤니티 형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 튜비언(TUBE-ion: TUBE의 회원들을 지칭하는 말)들은 동아리방을 거점으로 각종 자전거 행사와 친목도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정기 라이딩을 개최하며, 라이딩 훈련과 정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전국을 일주하는 '썸머투어'는 동아리 라이딩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서울시립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매 학기마다 무료로 정비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비행사가 아니더라도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이라면 언제든지 자전거를 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 길을 달리다! 점음을 달리다!

서울시민들에게 라이딩코스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강 자전거 도로이죠! 우리 튜브의 주 라이딩 코스 역시 한강 자전거 도로입니다. 한강에서 독섬, 서울숲, 반포대교, 여의도 등이 대표적인 단거리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거리 코스로는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팔당호를 지나 조금 더 들어간 곳에 분원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코스는 업힐(오르막)과 다운힐(내리막)이 계속 반복되면서 라이딩 훈련에 적합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도 많죠. 지난 5월 초에 분원리에서 라이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들른 식당에서 고맙게도 건빵을 잔뜩 나눠주었습니다. 라이딩이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 스포츠다보니 금세 허기가 지게 되는데, 식당 아주머니께서 주신 건빵 덕분에 라이딩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분원리에 대한 좋은 기억 중 하나죠.

### 자전거! 꼭 안전과 함께 타세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취미활동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먼저 자신에게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시는 중요해요. MTB(산악용자전거)를 많이 선택하시는데 도시 자전거도로에서 즐기려면 MTB보다는 로드바이크가 맞는 선택입니다. 또한 자전거 라이딩은 중심을 잃기 쉽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레저 스포츠이다 보니 그에 따른 안전장비가 필수입니다. 헬멧, 장갑, 야간 라이딩의 경우 전조등, 후미등은 꼭 갖춰야 하는 장비입니다. 팀 라이딩의 경우는 서로 호흡이 맞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수신호 또한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발 전 자전거 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일과 준비운동이죠. 초보들에게는 라이딩 코스 찾기가 참으로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데요,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인터넷 자전거모임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면 더 재밌는 라이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학우분들이라면 저희 동아리에 들어오시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 '자전거'라는 소중한 친구를 옆에 두세요!

우리 튜비언들은 자전거를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학업에 지친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놀아주고, 위로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전거를 친구라고 생각하죠. 자전거를 소중히 하다보면 마치 생명이 있는 존재처럼 애정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각 건물마다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치된 자전거 수를 보면 요새 정말 많은 학우들이 자전거를 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아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학교 측의 좀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학우 여러분, 저희 튜브와 함께라면 자전거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통한 폭넓은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고요, 자전거라는 친구를 통해 튜비언이라는 일생의 친구를 얻는 셈이지요. 주저 없이 튜브로 '고고씽'해 주세요. 동아리방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Interviewee  
TUBE 회장  
신선영 학생  
(환경조각 07)



## Human, Global, Innovative

### 최고의 인문사회 인재를 키우다!

세계와 함께하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 우리 대학과 함께하는 대학은 어떤 곳일까? 우리 대학과 교류를 맺고 있는 세계의 명문대학을 알아본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만 지성인의 요람, 대만국립정치대(National Chengchi University)를 소개한다.

##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 대만 인문사회계열의 중심지

대만국립정치대는 인문사회계열 학과 중심의 국립대학이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 위치해 있으며, 1927년 개교 이래 정치 사회적으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2008년 제2차 공무원 사법시험 합격자 중, 이 대학 법학과 출신자가 53명으로 대만 내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대만의 명문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대만대학 중 8위권, 전체 아시아 대학 중에는 30위권인 명문대학 중의 하나이며 총 교원 수 635명, 학생 수는 1만 5천여 명이며 9개 단과대학 33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다.

'The Wall Street Journal Asia'에 의하면 대만국립정치대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우수한 MBA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로 선정되었다. 특히 경영대학원은 대만에서 유일하게 국제 경영학 대학원생 칼럼(GBF)에 소속되어 있고, 대만 내 최초이며 유일하게 국제 경영학 인증인 AACSB와 EQUIS를 모두 획득하였다. 앞으로 대만국립정치대는 그 동안 뛰어난 학문성과를 보인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전통을 살리면서 국제화를 추진하여 '인류애를 지니고 글로벌적이며 혁신적인 사고를 지닌 인재' 양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서울시립대학교와의 인연

대만국립정치대는 한국어학과가 있는 몇 안되는 대학으로 한국과 인연이 많은 나라이다. 우리 대학과는 2010년 9월 제22회 유럽국제교육협회(Europea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ducation, EAIE) 연례회의에 참석 중 대만국립정치대 International Affairs의 교류 담당자와 만나 교류에 대한 실무적인 만남을 시작하였다. 중국어권 교류대학 다각화 차원에서 교류대학을 모색하던 중 당시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는 유일한 대만 대학인 국립대만과학기술대외의 인문학 계열의 명문인 대만국립정치대와 교류협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2011학년도부터 교류협정을 체결하게 되었고 2011학년 2학기부터 상호 교환학생파견을 실시하고 있다.

#### 단과대학 안내

College of Liberal Arts / College of Science / College of Social Sciences  
College of Law / College of Commerce /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College of Communication / College of International Affairs  
College of Education ※ 연간 약 500여 개의 과목을 영어로 제공

#### 연락처

Offi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No. 64, Sec. 2, Zhinan Rd.,  
Wenshan Dist., Taipei 11605, Taiwan  
Tel. 886-2-29393091-62068 Fax. 886-2-29399850 <http://oic.nccu.edu.tw>



서울시립대는  
진정으로 큰 학문을  
펼치는 大學입니다.

2018년 개교 100주년을 향한 서울시립대의 새로운 비전.

그 화두는 "함께"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을 만드는 것이지요.

서울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공공의료교육연구위원회.

자신들의 재능을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 서울시립대입니다.



# U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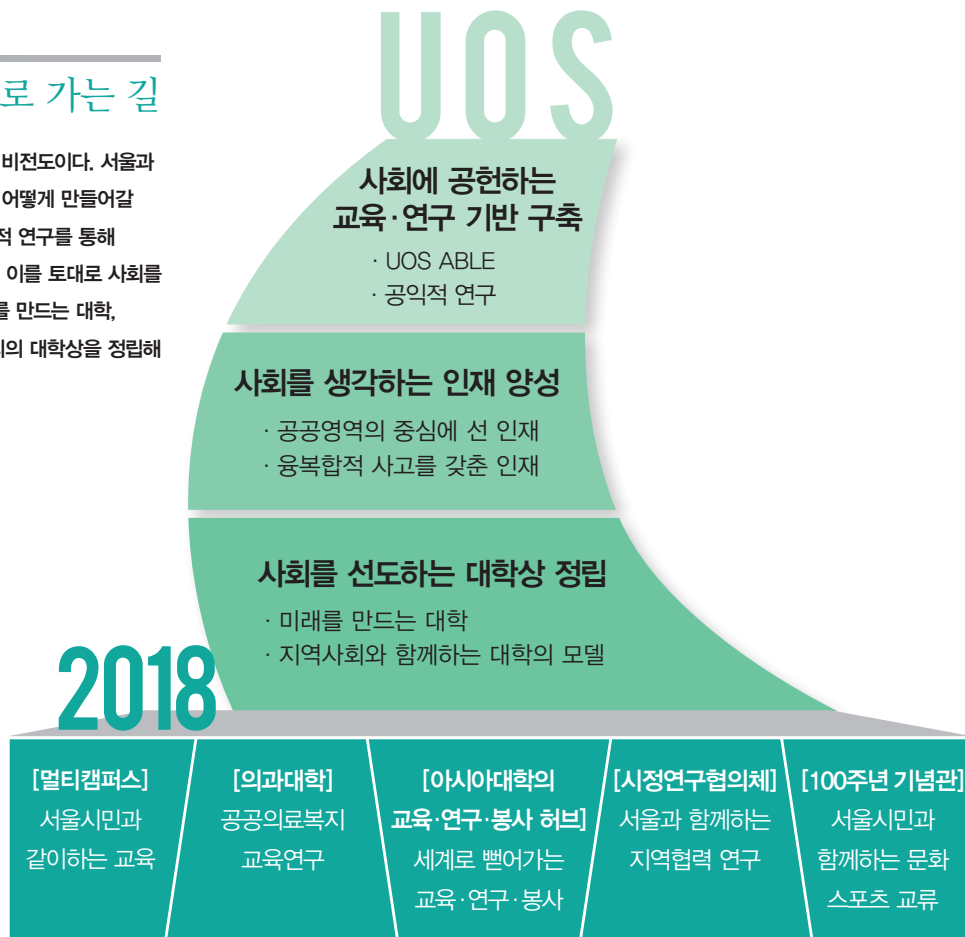
## 발전을 넘어 도약으로 2018 새로운 100년을 향하다

2018년 서울시립대학교는 개교 100주년을 맞이한다.  
이건 총장은 지난 4월 30일 개교 94주년 기념식에서 '서울과 함께하는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의 비전을 선포했다. '사람을 세우는 대학, 세상을 밝히는 대학'을 실천하며, 다가올 100년을 서울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새로운 비전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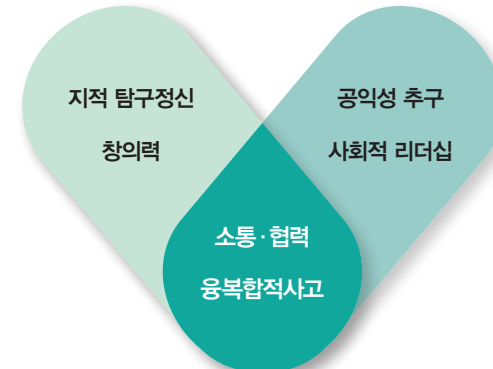
### 서울과 함께하는 새로운 100년

#### 서울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가는 길

'서울과 함께하는 새로운 100년'에 대한 전체 비전도이다. 서울과 함께, 새로운 대학 문화를 선도하는 100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UOS ABLE과 공익적 연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교육,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를 생각하는 인재를 양성하여 궁극적으로 미래를 만드는 대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의 롤모델로서 우리의 대학상을 정립해 나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재



### UOS ABLE

[Activity Based Learning & Education]

- 지식전달 중심교육에서 역량함양 중심교육으로 전환
- 단순한 지식습득이 아닌 문제발굴능력, 정보통합분석능력 함양
- 지적 역동성을 진작시키는 교육문화 정착

### 서울과 함께 하는 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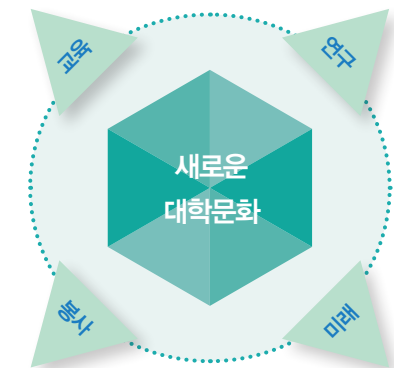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인재는 바로 지적 탐구정신과 창의력을 갖추고 소통·협력하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인재이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은 UOS ABLE(Activity Based Learning & Education)를 통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획득한 지식을 자신의 지적 능력으로 전환시키며 새로운 지식에 도전하는 정신을 지닌 인재를 만들어 갈 것이다.

### 서울과 함께 하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는 [교육, 연구, 봉사, 미래] 총 4가지 분야의 목표달성을 통해 서울의 생활과 시민의 교육을 생각하며 교육의 소외를 해소하고 미래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다.

### 사람을 세우는 대학, 세상을 밝히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

- |                               |                                  |
|-------------------------------|----------------------------------|
| <b>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b> | <b>세계수준의 연구로 도시의 가치를 창조하는 대학</b> |
| · 지적 탐구정신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교육       | · 미래 사회를 개척하는 연구                 |
| · 소통하고 연계하고 융합하는 교육           | · 경계를 넘어 소통하는 연구                 |
| · 공익성을 추구하는 교육                | · 도시학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연구             |



- |                               |                          |
|-------------------------------|--------------------------|
| <b>지역사회와 더불어 소통하고 발전하는 대학</b> | <b>미래를 밝히는 대학</b>        |
| · 학생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대학        | · 미래의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대학 |
| ·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나누는 대학           | ·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동하는 대학   |
| ·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과 공공성을 배양하는 대학   | · 시민과 함께하며 봉사하는 대학       |

지금까지 새로운 100년을 향한 서울시립대의 비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비전이 단지 하나의 생각에 그치지 않고 진정으로 완성되기 위해 현재 서울시립대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봉사 분야의 재능나눔활동과 미래분야의 공공의료교육연구 활동이 활발하다. 학생들의 전공 연계 봉사를 통한 재능나눔을 활성화하고 공공의료교육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소통하는 대학, 서울시립대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 같이 '와락'하고 함께 '얼싸'안은 서울시립대를 위하여

음악학과 & 총학생회 재능기부 콘서트 「Harmony」

반값 등록금 실현과 함께 우리 대학은 사회봉사활동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5월 재능기부 콘서트 'Harmony'를 개최한 총학생회와 음악학과를 찾았다.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대학'을 위한 장을 마련한 두 주인공, 총학생회 회장 김경원 학생(환경공학 05)과 음악학과 회장 김준호 학생(음악 09)의 따뜻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왼쪽부터 음악학과 회장 김준호 학생(음악 09)·총학생회 회장 김경원 학생(환경공학 05)

## '지역과 하나가 된 하모니콘서트'



지난 5월, 함께하는 '재능기부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어떻게 이 공연을 주최하게 됐나요?

**김경원** 학생들이기리만 즐기는 축제가 아닌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나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된 이번 공연은 '하모니콘서트'로, 음악학과 전공자들이 오케스트라를 포함한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해 함께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내용면에서도 공연의 이름답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기획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학과에서 음악봉사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아이들의 힘을 빌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합창공연을 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든 것이죠. 우리들로서도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김준호**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규모 스케일의 공연은 정말 드물어요. 평소에 교수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재능기부'를 모토로 하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단순히 기존에 했던 무료연주회를 넘어 재능을 기부하는 연주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무척 크죠. 각자 전공별로 작곡, 피아노, 성악 등 분야별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것이 참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각자 충실하게 재능기부를 한 셈이죠.

## '학교 담장을 넘어 와락 껴안고 함께 하자'



재능기부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마친 후의 소감은 무엇인가요?

**김준호**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서울시 소재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어요. 특히 박원순 시장님께도 트윗터를 날렸었는데 대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기부문화를 일궈낸 것이 자랑스럽다고 직접 답을 주셔서 참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공연을 마치고 각종 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 다양한 문화단체에서 재능기부연주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죠. '아, 우리가 이정도로 큰 파급효과를 미쳤구나'하는 생각이 더 성공적인 다음 공연을 위해 지금 준비를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원** 공연을 함께 준비하면서 좀 더 크기를 키워 최대한 많은 이들이 즐기게 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큰 무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나 예산이죠. 이에 대해서는 학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뿐 아니라 총장님을 비롯한 지역의원 등 관련 지역계 인사들도 많이 참여하셔서 나름 규모 있는 지역구 대표행사로 자리 잡게 된 것 같아 더욱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총학생회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과 함께하는 PC교실 등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동제 이름도 지역주민을 '와락' 껴안고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와락'으로 지었죠. 학교의 담장을 넘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재능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 '서울시립대의 재능기부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학교에 바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김경원** 이번 연주회를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중간고사기간과 겹쳐서 더욱 힘든 부분이 있었죠. 때문에 현재는 1학점인 봉사이수학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학교측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주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재능기부활동을 끊임없이 이어갈 계획입니다. 반값 등록금 시행 덕분에 우리 스스로 자기계발이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데 소모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농활과 PC교실, 영어교실 등을 활발히 열어 더욱 지역주민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이번 공연이 무척 성공적으로 끝나긴 했지만 학생들이 적어 오케스트라가 아쉬웠어요. 바이올린 20대가 연주할 것을 10대가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리의 울림에도 차이가 나니까요. 때문에 입학정원이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2회의 재능기부 연주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면 더욱 많은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사회

공공의료교육연구위원회 발족식



함께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우리 대학은,  
공공의료 분야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해  
서울의료원과 함께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첫 단추로 서울시민의 대학인  
우리 대학과 서울시민의 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이  
공공의료의 교육·연구라는 주제를 공유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6월,  
공공의료교육연구위원회와  
실무단을 발족했다.

## 세계 최고의 공공의료시스템 완성

공공의료교육연구위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다룰 수 없는 도시민의  
건강을 위한 예방의학, 조기검진, 선제치료,  
생활의학,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의학 등  
공공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서울시민의 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의료교육연구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의료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공공의료교육연구위원회 일정

행사명	일정(예정)	개최 장소
발족식 및 1차 세미나	2012. 6. 5	서울시립대
2차 세미나	2012. 7	서울의료원
3차 세미나	2012. 8	서울시립대
심포지엄	2012. 9~10	미정
4차 세미나	2012. 11	서울의료원
5차 세미나	2012. 12	서울시립대
6차 세미나	2013. 1	서울의료원
심포지엄	2013. 2~3	미정

## 공공의료 교육·연구의 새로운 중심지

우리 대학은 공공보건의료의 기초가 되는  
생명과학, 사회복지학, 생활체육정보학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교육과 연구업적을 축적하고  
있다. 이에 우리 대학이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의료원과 공공의료에 대한  
교육·연구를 함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서울시, 서울의료원, 서울시의회,  
그리고 서울대보건대학원이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우리 대학이 서울시 공공의료에  
대한 종합적 교육·연구의 중심점이 되어갈  
것이다.

### 공공의료교육연구 사업 추진계획

단계	일정	내용
1단계	단기	정례 세미나(매월), 심포지엄(반기별)
		해외 의료·교육 봉사프로그램 운영
2단계	중기	심리치료사 양성과정 운영(민대학) 의료복지학과(계약학과, 서울의료원) 설치
		서울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연계 봉사
3단계	장기	스포츠공공의료센터, 공공의료교육 혁신연구소 개소
		보건대학원 신설 추진
4단계	장기	서울시립대학교 의대설립



# 시립대 + 함께라면

만원 이어달리기 캠페인



## 소통과 화합의 소액기부 캠페인

발전기금 확충을 위해서는 거액 모금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대학 전 구성원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모금 프로그램이 더욱 호응을 얻어야  
한다. 이에 2018 개교 100주년을 준비하는  
서울시립대는 특별한 소액기부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립대와 함께라면 만원 이어달리기'  
캠페인이 바로 그것이다.  
'시립대와 함께라면' 캠페인은 기존의 감성에  
의존하던 모금방식을 벗어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라면'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집행되는 캠페인으로 (주)삼양식품에서 협찬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발전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  
로 홍보하고 대학발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서울시립대 구성원으로서의 자부  
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교 100주년을 앞두고, 서울시립대의  
소통과 화합의 자리가 절실한 이 때,  
'시립대와 함께라면'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 낼 것을 기대해 본다.

### '시립대와 함께라면'이란?

우리 대학에서 새롭게 시작한  
'시립대와 함께라면 만원 이어달리기 캠페인'의  
출입말로, 서울시립대인이라면 누구나 우리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달 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2018 개교 100주년까지 진행하며  
100주년 기념관 및 대학발전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Interview

기획처  
홍보·대외협력팀  
손난주

## '시립대와 함께라면'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 Q. 현재까지 서울시립대인의 호응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캠페인의 시작은 지난 5월 대동제  
행사에서 라면을 끓이면서  
시작했습니다. '시립대와 함께라면'이  
출시되었음을 알리고, 내부 구성원부터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함이었지요.  
우선,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감증을  
유발하는 면에서는 성공 했다고  
봅니다. 참여율도 늘어나는 추세이구요.

### Q. 보다 많은 참여를 위해 희망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시대인'이라면 매달 만원의 발전기금  
기부하기! '만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입니다. 커피 한잔 덜 마시면  
모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를 사랑하시는 동문,  
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1+1=10이 되는 힘! 바로 동문에게 있습니다

‘진인사대천명’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말이다. 여기서 유태승 회장은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함께’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더 큰 복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함께’의 주체가 되는 것이 바로 서울시립대인, 동문들이라고 말한다.

유태승 총동창회장(환경원에 7)

## “추억을 지키고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서울시립대 동창회장을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원예학과 기학번인데 그때만 해도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이 전체 수험생의 10%도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큰 일이었지요.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서울시립대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무척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이곳을 지키고 싶고 발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 “소액기부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학발전의 밑거름입니다”

**이번 함께라면 행사에 1000만원을 약정해 주셨습니다.**

기획처에서 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무척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큰 기부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은 우리 대학이 한 학년에 2,000명 정도 되는 큰 학교로 성장했지만 저희 때만 해도 한 학년에 12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사회에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5~60대 사회지도층이 타 대학에 비해 무척 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학교의 여건 상 소액기부를 권장하는 ‘함께라면’ 같은 행사가 더욱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씩 몇 사람이 기부하는 것보다 1만원씩 몇 천명이 기부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내는 법이니까요. 물론 저는 동창회장이니깐 좀 많이 냈습니다.(웃음)

## “발전기금 기부자들을 많이 홍보해 주세요”

**기부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면요?**

뉴스를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분들’ 흔히 얼굴 없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기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조금 자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돈의 크고 작음을 떠나 기부하신 분들을 많이 홍보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처럼 나서기를 꺼려하고 조용한 학풍을 지닌 학교에서는 더욱 더 많이 자랑하고 알려져 붐업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를 봐도 학교가 많이 발전하니까 예전에는 별 관심 없던 동문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동창회 차원에서도 기념품 사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간구중입니다.

## “도전적인 서울시립대인으로”

**서울시립대와 더불어 서울시립대인도 발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가난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공사 등 안전지향적인 직업을 선택했고 인내하는 성격을 지닌 학생들이 많았지요. 그렇다보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은데 도전적인 사람들은 적었어요. 그래서 전 후배들이 욕심을 가지고 야심차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물어보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말이지요.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타 대학과 비교해서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 측에서 ‘창업’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많이 개설했으면 합니다.

## “1+1=10이 되는 힘, 바로 동문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대인들에게 힘이 되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34살 때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되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고 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열심히 살아야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1+1=2라는 것을 알지요. 하지만 사업에서는 1+1=2가 되면 망합니다. 1+1=10이 되어야 하지요. 그럼 1+1=10이 되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입니다. 나만 보지 않고 남도 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남도 아닌 동문이 있습니다.

이 동문들이 합치면 그 힘은 엄청납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을 둘이 합치면 거뜬히 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혼자만 열심히 살지 말고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지요. 스스로 최선을 다 할 때 하늘의 뜻이 움직인다는 것인데 여기에 ‘스스로’를 넘어 ‘함께’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하늘이 더 큰 복을 내리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1+1=10이 되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입니다.  
나만 보지 않고 남도 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남도 아닌 동문이 있습니다.  
이 동문들이 합치면  
그 힘은 엄청납니다.”

# 함께 하는 힘, 그것은 더 큰 꿈을 만듭니다

김기동 동문(경영 82)

한 캠퍼스에서 꿈을 나누고 그것을 이뤄내는 사람들. 그들이 이룬 꿈은 시간이 흐른 뒤 같은 캠퍼스를 걷는 다른 세대들에게도 이어진다. 꿈을 먼저 이룬 사람들은 앞으로 꿈을 이룰 사람들에게 든든한 서포터가 된다. '동문'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는 우리 대학 총동문회의 감사직과 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이사직을 맡고 있는 김기동 동문에게 변함없는 진리다.



## 동문은 나의 사랑, 나의 힘

동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꿈과 미래를 밝혀가는 것이 자신의 바람이라는 김기동 동문. 그는 현재 '김기동 세무사 사무소' 대표이자 동대문지역세무사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 대학 세무사 동문회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1982년, 대학에 입학한 김기동 동문의 모교사랑은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 같다. 경영학과에 입학해 1987년 '제24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뒤 사회에 진출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도 그는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 동문들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이 발전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꾸준히 이어왔다. 모교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그는 오늘의 서울시립대가 그 어느 대학보다 자랑스럽다.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캠퍼스의 규모나 입학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었습니다. 1986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동창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동창회를 개최하면 40명 정도 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의 밤'을 개최하면 참여하는 인원이 600여 명 정도 되잖아요? 엄청난 발전을 해온 것이죠."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동문들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김기동 동문은 이에 큰 의미를 둔다. 동문들의 네트워크가 단단해야 서로 발전할 수 있고 그 발전이 고스란히 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동창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간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김기동 동문의 성취감은 배가 된다. 그는 현재 우리 대학 총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태승 동문(환경원에 계)을 회장직으로 추대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지난 1994년에는 '시립대 세무사회'를 만들어 동문 세무사들의 힘도 한데 모으기 시작했다.

## UOS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날을 기다리며

김기동 동문이 세무사회를 창립했을 당시에는 활동인원이 고작 6~7명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 대학 출신의 세무사들이 늘어나 현재는 약 200여명이 활동 중에 있다. 그가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된 계기는 딱 한 가지. '동문의 발전'이었다. "제가 처음 세무사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제 위의 선배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든 점도 많았고, 선배들의 손길도 그리울 때가 많았죠. 그러면서 후배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내 뒤를 이을 후배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그의 그런 바람은 재학 중에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입학하고 2년 뒤 우리 대학에 세무학과가 신설되자 그는 3학년이 되던 해에 세무사 고시반을 만든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동문의 관계란 서로 의지하고, 때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같은 관계다. 그 스스로 또한 사회에 처음 발을 딛는 후배들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한 바람 때문인지는 몰라도 오늘날 우리 대학 출신의 세무사들은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는 지금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후배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했다. "젊은 시절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애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녀보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목표를 확고히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아마 훗날 자신의 모습이 지금 생각보다 더 성장해 있음을 발견하게 될 날이 올 테니까요." 우리 대학 동문 모두가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힘이 되는 날이 온다면, 아마 그날은 우리 대학이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 되는 출발선이 되지 않을까? 동문들의 힘을 모아 후배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또 후배들은 그런 동문들의 발자취를 따라 뒤를 잇게 된다면 그것은 허황된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김기동 동문의 바람처럼 더 많은 동문들이 하나가 되는 날, 어서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본다.

"동문의 관계란 서로 의지하고,  
때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같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딛는  
후배들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 UOS의 Quality를 인정받다

## 서울시립대, 2012 조선일보-QS 평가 순위 대폭 상승

2009년에 처음 시작된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는 조선일보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uacquarelli Symonds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대학평가다. 올해에는 아시아권 15개 국가, 461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이 평가는 연구의 질, 교육의 질, 졸업생 평판도, 국제화 등 총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평가의 전체 순위 결정에 영향력이 가장 큰 부문은 QS사에서 대학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는 '연구의 질'부분이다.

올해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 결과가 우리 대학에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우리 대학은 국내 순위 16위, 아시아 순위 83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국내 24위, 아시아 132위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결과다. 조선-QS평가가 처음 시행된 2009년부터 매년 평가에 참여해온 결과, 150위에서 출발한 아시아 순위가 143위, 132위로 꾸준히 상승하여 왔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100위권 내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이는 연구영역의 비중을 60%에 두고 있는 본 평가에서 연구영역의 순위 상승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의대 없는 대학이 갖고 있는 연구실적의 양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거둔 것이기에 더욱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의대가 있는 대학은 다량의 연구 논문이 꾸준히 발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평가에서도 의대 없는 대학의 평가 순위를 따로 발표하고 있다.

의대 없는 중소 종합대학 순위를 알아보면 아시아권 21위에서 15위로 뛰어올랐으며, 이는 교수진과 대학본부의 다년간의 내실있는 노력이 누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분야의 지표뿐 아니라 9개의 평가지표 모두 아시아 순위가 상승하여 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고무적이다. 교육여건과 국제화에서도 차분히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이번 평가의 결과로 드러났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 대학은 전체 지표의 평가 결과가 전년도에 비해 고르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단순히 양적 증가만으로는 세계적인 대학 서울시립대를 이룰 수 없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그에 따른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의 결과의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욱 더 큰 투자와 관심으로 우리 대학의 Quality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다.

### • 2011-2012 우리 대학 순위 비교

평가지표	가중치(%)	2012년		2011년	
		국내 순위	아시아 순위	국내 순위	아시아 순위
학계 평가	30	12	78	18	131
교원당 논문수	15	35	200	36	201
논문당 인용수	15	44	186	50	201
교원당 학생수	20	24	132	25	153
졸업생 평판도	10	16	99	14	115
외국인교원비율	2.5	56	158	53	167
외국인학생비율	2.5	27	80	46	122
Inbound 교환학생 비율	2.5	1	8	3	18
Outbound 교환학생 비율	2.5	3	1	26	21
총합		16위	83위	24위	132위

2009년부터 꾸준히 상승,  
아시아 순위 100위권 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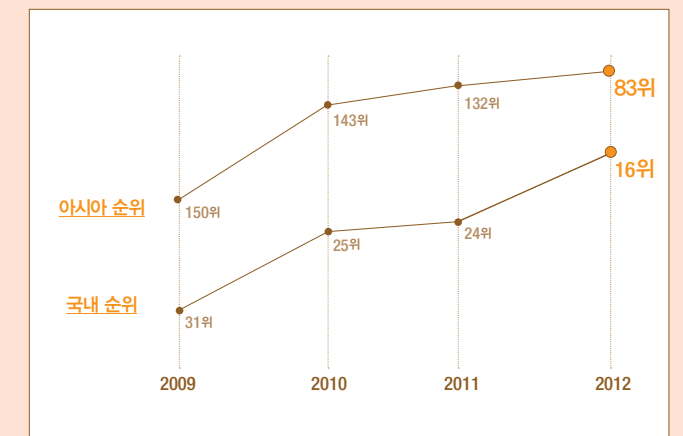
양적 증가뿐 아니라 내실있는  
발전을 이루는 서울시립대



### • 의대 없는 중소종합대학 아시아 순위

아시아순위	대학명	국가
1	홍콩과학기술대	홍콩
2	카이스트	한국(1)
3	홍콩시티대	홍콩
4	도쿄공업대	일본
5	국립칭화대	대만
6	IT뮴바이	인도
7	IT델리	인도
8	IT마드라스	인도
9	IT칸푸르	인도
10	국립교통대	대만
11	서강대	한국(2)
15	서울시립대	한국(3)
24	숙명여대	한국(4)

### • 조선일보-QS 아시아 대학평가 순위 상승 추이



## 우리 대학의 위상에 맞는 투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Interview \_ 기획처장 김설향 교수

### 이번 조선일보-QS평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QS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대학의 핵심역량으로 꼽고 있는 '교육' 능력 보다는 '연구' 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별 지향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평가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연적 목표인 시대에, 연구의 질 향상을 토대로 대학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세계 많은 대학들의 방향성을 간과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 대학의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한 관련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 등을 다시금 점검하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대학은 어떤 분야에 좀 더 투자를 해야 할까요?

연구부문뿐 아니라, 교육여건 또한 우리가 가야할 길이 멀니다. 교육여건을 평가하는 지표가 교원 당 학생수 지표 단 하나인데, 그만큼 가장 기본적으로도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공립대학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위상에 맞는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교원확충 등의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고,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교내소식



### 개교 94주년 기념식, 대학 비전선포

4월 30일 우리 대학 개교 94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이 자연과학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간 총장은 유태승 총 동창회장, 보직교수를 비롯한 교직원, 학생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과 함께하는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개교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하였다. 또한 20년 근속 교직원 3명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 공공의료교육연구위원회 발족

6월 5일 우리 대학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서울의료원과 함께 공공의료교육연구위원회를 발족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사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시 공공의료에 대한 중

합적 교육·연구의 중심점이 될 공공의료교육연구위원회는 우리 대학과 서울의료원 의료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이간 총장과 김민기 서울의료원 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 제1회 재능기부 콘서트 Harmony 개최

총학생회와 음악학과가 5월 4일 지역 주민과 대학 구성원을 위한 재능기부 콘서트를 개최했다. 음악학과 학생들의 연주와 함께 우리 대학 부설 사회복지관 어린이들과의 합창 무대 등 함께 즐기는 음악회로 800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의 자발적 기부에 의해 마련된 이번 콘서트는 학생처와 예술체육대학, 총동창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 대동제, '와락(樂)!'

2012 대동제가 5월 23일부터 3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대동제는 학생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교내

구성원,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함께 즐기자는 의미로 '와락'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획됐다. 계란 800개와 밥 1,600인분이 들어간 100m 대형 오므라이스를 만들고 나누는 먹거리 이벤트로 시작한 이번 축제는 물총 서바이벌, 카트 레이싱, 슈퍼스타 K-UOS, 핫도그 빨리 먹기 대회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다. 또한 3일간 캠퍼스를 달구었던 중앙무대에서는 인기가수의 공연 뿐 아니라 학생식당 직원, 환경미화원들과 재학생이 함께한 하모니 합창단과 동대문구 지역 공연팀과 우리 대학 동아리의 합동공연 등 지역민과 하나 되는 축제가 펼쳐졌다.



### 환경조각학과 학생들,

#### 물로 그린 신윤복의 '단오풍정'

3월 21일 환경조각학과 학생들이 탄천 축구장(서울 송파구 가락동)을 화폭으로 신윤복의 초대형(가로 80m, 세로 75m) '단오풍정'을 그려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한 이 행사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국제 구호프로그램인 '워터빌(Waterville, 적십자사의 네팔, 필리핀 등 저개발국가의 열악한 식수위생 개선 및 교육사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 "MicroSoft Day" 행사 개최

4월 4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한국MS)에서 주관하는 "MicroSoft Day" 행사가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됐다. IT 최신기술을 경험하고 취업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번 행사는 김명호 박사(한국MS)의 특강을 비롯한 강연과 Windows7 PC, DreamSpark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체험 행사로 이루어졌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노트북, Xbox, 키보드·마우스세트, 원포인트서프, 기념품, 간식 등이 제공되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1일 한국MS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정

4월 2일, 우리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주관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선정된 65개 대학에는 매년 2억원의 지원금이 최장 10년간 지급되며, 3~4년마다 평가를 통해 하위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된다. 우리 대학을 비롯하여 건국·고려·광운·동국·서울과학기술·서울·숭실·연세·이화여자·중앙·홍익대 총 12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우리 대학이 2012학년도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약 16억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4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신청대학 143개교 중 총 97개교를 선정·발표했다. 올해는 특히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MOU 체결 등)하고 있는 국립대학을 선정·지원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지원 사업(ACE)' 지원대학 선정

우리 대학이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지원 사업(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125개교 중 다양한 학부교육 선

도모형을 제시한 11개 대학을 선정, 매년 30억씩 4년간 1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0년 최초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선정된 우리 대학은 전체 학부·과에 대한 교육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글쓰기센터 설립 및 융합교양군을 설치하는 등 자체 교육 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 '선도·우수대학' 선정

우리 대학이 2012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 '선도·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5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에 58개 대학을 발표, 운영에 가장 적극적인 대학 30곳을 선도대학으로 지정했다. 30개 대학에는 총 249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난해까지 우수대학이었던 우리 대학은 올해 처음 선도·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 2012 조선일보-QS 아시아권 대학평가,

#### 국내 순위 8단계 상승

5월 29일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한 '2012 조선일보-QS 아시아권 대학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국내 순위 16위, 아시아 순위 83위에 랭크되었다. 국내 순위는 전년도 24위에서 8단계 올랐으며, 아시아 순위는 처음으로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2009년 처음 실시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은 본 평가는 조선일보와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아시아 15개 국가에서 46개 대학이 참가했다.

### 2012 하계 UOS Job School

취업경력개발센터에서는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 80명을 대상으로 UOS Job

School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분석과 자기분석, 유형별 면접, 개별 면접, 이미지메이킹, PT 경진대회 등을 통해 효과적인 취업전략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다. 지난 6월에는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대학생들의 7가지 습관(The 7 Habits)'을 주제로 2박 3일 캠프를 진행했다.

### 서울학연구소, 대학의 유산 선정

우리 대학 서울학연구소가 교수신문이 창간20주년 기념사업으로 특별기획한 '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다'에서 대학의 유산으로 선정되었다. 2010년 12월부터 진행된 '대학의 유산' 특별기획에는 44개 대학 79점의 유산이 출품됐으며, 대학의 유산 선정위원회는 총 13편의 유산을 최종 선정해 올해 4월 초까지 교수신문에 연재했다.

### 제2회 외국도서 전시회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신간 전공도서를 중심으로 한 '제2회 외국도서 전시회'가 열렸다. 미래관 1층 로비와 학관 4층 법학라운지에 법학 관련 도서 2,000여 권을 비롯한 전 분야의 도서 7,000여 권이 전시되었다. 전시와 함께 도서관 비치 희망도서를 추천받았는데 추천받은 2,800여 권의 도서는 도서관에서 복본조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구매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은 전시기간 동안 기증도서 코너를 운영, (주)학술정보에서 기증한 도서 500여 권을 전시회 참가자에게 증정했다.

### 음악학과, 스승의 날 감사 연주

5월 15일 음악학과 학생 50여 명이 스승의 날을 맞아 등곳길 감사 연주회를 펼쳤다. 참가 학생들은 전농관 앞 광장에서 20여 분간 스승의 은혜와 위풍당당 행진곡 등 4곡을 연주했다. 스승의 날 감사연주는 음악학과 학생들이 뜻을 모아 2010년 처음 시작했다.

# UOS News



**생활체육정보학과, 국제대학에어로빅스대회 그랑프리**  
5월 30일 생활체육정보학과 학생들이 (사)한국에어로빅건강과학협회에서 주최한 '2012 국제대학에어로빅스대회'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강석 외 12명이 단체경기 종목 그랑프리(1등, 지도교수 김설향)를, 박성민 외 2명이 에어로빅 체조 종목 금메달(2등, 지도교수 오유성)을 수상했다. 출전하지 않은 학생 120여명도 이날 응원에 참가 단체 응원상을 받았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대학 36개 팀이 참가했다.



**사랑의 야식**  
6월 18, 19일 양일간 학생회관 1층 식당에서 사랑의 야식 행사가 열렸다. 이진 총장과 교수, 직원들이 함께 배식에 참여하여 학기말 시험 준비 중인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소시지 샌드위치와 콜라가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3,0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생회관 식당을 찾았다.

**리더스 콘서트, 카피라이터 최인아(제일기획 부사장) 초청**  
5월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명사 릴레이 특강 리더스 콘서트가 자연과학관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사로 초청된 최인아(제일기획 부사장) 씨는 '읽고 쓰고 행하라!'는 주제로 텍스트와 관련한 소통의 방식, 책을 대하는 자세 등에 대한 생각과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소연 씨, '201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Best of Best 수상**  
유소연(산업디자인학과 07) 씨가 '2012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award : design concept 2012)'에서 Junior 부문 Best of Best를 수상했다.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는 IF 디자인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손꼽히는 산업디자인 공모전으로 매년 뛰어난 양질의 디자인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세계 43개국에서 총 6,823개의 작품이 출품됐다.

**권은진 씨, '2012 원소 국제광고제' 본상 수상**  
에너지환경시스템공학 석사과정 권은진 씨가 세계 5대 광고제 중 하나인 미국 '2012 원소(One Show) 국제광고제'에서 학생 부문(Young Ones)

3가지 본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동물보호단체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캠페인 광고로 동전과 저울을 이용한 작품으로 동전을 넣으면 넣을수록 빠른 양상했던 물고기의 비늘이 복구되는 모습 등을 표현하여 학생 부문 본상 펜슬상(Pencil Award)과 메리트상(Merit Award)을 수상했다.

**법학관, 서울 건축문화 여행 지도 게재**  
우리 대학 법학관(건축명 : 랜드스케이프 복합체)이 서울 건축문화 여행 지도에 실렸다. 법학관은 지난 2009년 '제27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공공건축 부문 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체육시설이 복합된 건물로서 주변 경관과 건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성으로, 메탈패널과 유리의 하드스케이프와 잔디와 나무로 이루어진 소프트케이프가 상호간의 대비와 조화를 구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UOS 크로스 학술 포럼**  
6월 27일 자연과학관 국제회의장에서 제9회 UOS 크로스 학술포럼이 개최되었다. 인문대학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한상호 EBS PD(점박이 : 한반도의 공룡 3D 영화감독)의 '자아의 신화를 찾아서'라는 강연이 펼쳐졌다. UOS 크로스 학술포럼은 산학협력단의 지원으로 매월 단과대학별로 개최되고 있다. 지난 5월 공과대학이 주관한 이대성 박사(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혁신기술연구소장)의 항공우주 강연을 시작으로, 정경대학 주관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강연 '미래사회와 나라살림', 경영대학 주관 주철환 PD(현 JTBC 방송제작본부장)의 강연 '대학문화와 대중문화' 등 매월 다양한 분야와 주제의 특강이 이루어졌다.

## 교수동정

**이지영 교수, 실내공간정보 국제표준화그룹 부의장**  
공간정보공학과 이지영 교수가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내에 결성된 실내공간정보 국제 표준화 그룹 부의장에 선출됐다. OGC는 공간정보 관련 국제 표준화조직으로 구글·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 같은 글로벌 IT 기업과 미국 지질조사소(USGS)·항공우주국(NASA) 등 세계 주요 정부 기관 43곳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으며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제80차 OGC 총회에서 국내연구진이 제안한 실내공간정보 국제 표준화 그룹 결성이 최종 승인되었다. OGC는 산하에 36개 표준화 그룹을 두고 있는데 한국 연구진이 의장단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기혁 교수, 서울시 문화재 시민명예 공사감독관 위촉**  
건축학부 권기혁 교수가 '문화재 시민명예 공사감독관'으로 위촉되었다. 무보수 명예직인 시민명예감독관은 2013년 12월까지 서울 한양도성과 운현궁, 경교장 등 7개 복원 공사 현장을 감독하게 된다. 서울시는 문화재 복원공사의 현장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예산낭비 등이 없는지 공정을 감시하기 위해 '문화재 시민명예 공사감독관' 12명을 위촉했다.

**박현열 교수, 피에트라산타 한국조각전 운영위원장**  
환경조각학과 박현열 교수는 5월 5일부터 한 달여 간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에서 한국 현대 조각을 집중 조명하는 2012 한국조각가전을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는 한국 조각가들이 피에트라산타와 인근 카라라와에 유학을 시작한지 30여년 만에 이뤄지는 전시로 한국조각의 발전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의미있는 전시였다. 특히 조각품의 특성상 해외전 추진이 쉽지 않은 한계를 깨고 대규모로 한국조각품이 소개된 이번 전시는 한국 조각사에 기록되는 역사적인 전시로 평가받았다.

**김한배 교수, 한국조경학회 회장 선임**  
조경학과 김한배 교수가 제21대 한국조경학회 회장에 선임되었다. 임기는 2013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사단법인 한국조경학회는 '한국조경학회지' 발간을 비롯한 학술 활동과 조경 분야 대표적 공모전인 '대한민국 환경조경 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박동수 교수, 한림원 선도과학자 선정**  
물리학과 박동수 교수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 선도과학자에 선정되었다. 한림원은 지난해 노벨상에 근접한 과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도과학자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과학자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신봉호 교수, 신간 <잡 메이킹 이코노믹스>**  
경제학부 신봉호 교수가 '사람 중심 국가발전'을 열쇠로 한국 경제 문제를 진단한 책 <잡 메이킹 이코노믹스>를 발간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아래서 정책기획 비서관을 지낸 신 교수는 책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이 정부와 재벌이 결탁한 '1960년대 체제'의 산물임을 지적하면서 이 카르텔을 끊고 사람 중심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 송 교수, 한국지반공학회 학술상 수여**  
토목공학과 이송 교수가 3월 22일 지반공학 분야 학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로부터 학술상을 받았다.

**전갑배 교수, '2012, 봄 개인전' 개최**  
디자인전문대학원 전갑배 교수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사동아트센터 4층 제2특별관에서 '2012, 봄 개인전'을 개최했다. 전 교수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오일파스텔, 연필, 콘테, 흑연 등으로 심혈을 기울여 그린 나무 '나무-', '생동-', '마실가기', '꽃', '흙에서', '말과 기수' 등 작품 16점을 전시하였다.

**곽태운 교수, 송파구청 재정자문단 선임**  
경제학부 곽태운 교수가 송파구청 재정자문단에 선임됐다. 서울 송파구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재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재정 건전화에 나섰다.

**배우성 교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610주년 기념 학술대회서 토론**  
국사학과 배우성 교수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제작 6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았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현존하는 동양 최고(最古)의 세계지도로 조선 태종 2년에 제작된 세로 148cm, 가로 164cm의 규모로 당시 아시아·유럽·아프리카까지 포함한 구대륙 지도이다.

**박철휘 교수, 대한환경공학회 학술상 수상**  
환경공학부 박철휘 교수가 6월 7일 대한환경공학회에서 그간의 학술업적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상을 수상했다. 박 교수는 2008년 11월 대한상하수도협회, 2010년 4월 한국물환경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도시환경학회장을 맡고 있다.

**김기호 교수,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자문단장**  
도시공학과 김기호 교수가 6월 18일 서울도시기



# UOS News

본계획 자문단장에 위촉되었다. 서울시는 20년 후 서울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세우기 위해 김 교수를 비롯 각 분야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도시기본계획 자문단을 발족하였다. 자문단은 시민 참여형 방식의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3월 발표할 계획이다.

**박철수 교수, 파주시도서관 정기 인문학 특강 강연**  
건축학부 박철수 교수가 7월 파주시 도서관 작가 초청 특강에 초대되었다. 지난 연말 출간한 책과 관련 '아파트와 바꾼 집, 살구나무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건축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파주시 도서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인문학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박 교수는 「아파트의 문화사, 「소설 속 공간 산책(전3권) 등 전공 지식을 쉽게 풀어 쓴 책을 꾸준히 출간해 왔다.

**김정현·황선환 교수, 전국교수테니스대회 준우승**  
지난 5월 화학공학과 김정현·생활체육정보학과 황선환 교수가 '제4회 전국교수테니스대회'에서 청년부 B조 준우승을 차지했다. 1972년 시작된 이 대회에는 매년 100개 이상의 4년제 대학교에서 1000여 명의 교수들이 참가하고 있다.

**김현욱 교수, 산학협동상 우수상**  
환경공학부 김현욱 교수가 7월 12일 제34회 산학협동상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산학협동재단에서 매년 산학협동 활동을 통해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합리화에 기여한 자에게 수상하는 상으로 김현욱 교수는 기존 수입에 의존하던 수질 분석 키트를 개량해 원가절감, 수입대체 효과 등의 성과를 달성, 해당 제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 보직

- 김의용** | 과학기술대학원장 2012. 3. 26
- 이병정** | 과학기술대학원 교학과장 2012. 3. 26
- 이상석** | 도시과학연구원 환경계획연구센터장 2012. 4. 1
- 서순탁** | 교무처장 및 출판부장 2012. 4. 12
- 최성종** | 전산정보원장 2012. 4. 16
- 김민호** | 공과대학 컴퓨터과학부장 및 대학원 컴퓨터과학과 주임교수 2012. 6. 1
- 이주한** | 정보기술연구소장 2012. 7. 1
- 최석준** | 정경대학 경제학부장 및 대학원 경제학과 주임교수 2012. 7. 7

## 글로벌 소식

### 2012학년도 국제여름학교 I 운영

6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국제여름학교 I'가 운영된다. 20개국 28개 대학의 학생 97명과 우리 대학 재학생 UOS buddy 46명이 5주간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국적의 문화를 배우게 된다. 프로그램은 국어, 아시아학, 국제학, 환경공학 등의 영어 원어 강의와 한국전통 예절체험, 다도, 탈·도자기만들기, 태권도, 난타공연, 점프공연, 고궁견학, DMZ 방문 등 문화체험학습, 3박4 일의 현장 학습으로 이루어진다.

### 국제교육자협회(NAFSA) 참가

국제교육원은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우리 대학 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된 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참가했다. 방문단은 NAFSA 참가 뿐 아니라 신규 자매대학인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s Angeles를 방문하여 교류 활성화를 논의하고, 교류협정 체결을 논의하기 위해 Weber State University를 방문하였다.

### 2012~2013 UC Berkely 교환학생 모집

국제교육원에서는 6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UC Berkely 교환학생을 모집한다. 수학기간은 2012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1학기 또는 1년간) 또는 2013년 1학기부터 2학기(1학기 또는 1년간)까지 이다.

### 2013년 1학기 복수학위 프로그램 모집

6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2013년 1학기 복수 학위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선발된 10명의 학생은 미국 SUNY Stony Brook,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Miami University로 파견된다.

### 2012학년도 일본권 Summer Program 참가자 모집

- **Kumamoto University**  
Kumamoto University Summer Program - 7. 30 ~ 8. 11
- **Nagoya University**  
International Summer Seminar - 8. 5 ~ 8. 24
- **University of the Ryukyus**  
일본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 7.10 ~ 8.21

### 2012학년도 2학기 글로벌 인턴십 참가자 선발

- **뉴욕**  
Manhattan Borough President's Office(MBPO) - 2명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KAFSC) - 2명  
Asian American for Equality(AAFE) - 1명  
The English Language Center, Counter Staff(TELC) - 1명  
Single Stop Center - 1명

- Center for Immigrant Education and Training(CIET) - 1명  
ACE Vice President's Office (VPO) - 1명  
Yuan Zheng & Associates LLC - 1명

- **샌프란시스코**  
파견자 전공관련 기관 - 5명
- **말레이시아**  
파견자 전공관련 기관 - 5명

### 우리대학 방문 외빈

- **네덜란드** The Hagu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방문목적 교류협의 방문일자 2012. 4. 3
- **미국** University of Georgia  
방문목적 교류협의 방문일자 2012. 4. 3
- **몽골** 몽골국립농업대학  
방문목적 교류협의 방문일자 2012. 4. 26
- **스페인** Polytechnical University in Madrid  
방문목적 교류협의 방문일자 2012. 5. 16
- **미국** Minnesota State University  
방문목적 교류협의 방문일자 2012. 5. 24
- **중국**  
China Education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Exchange  
방문목적 국제여름학교협의 방문일자 2012. 5. 25
- **호주**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방문목적 교환학생 프로그램 협의 방문일자 2012. 5. 9  
방문목적 연수프로그램협의 방문일자 2012. 5. 29
- **독일** University of Leipzig  
방문목적 교류협의 방문일자 2012. 5. 30
- **덴마크** IBA  
방문목적 교류협의 방문일자 2012. 6. 5
- **캐나다** University of Windsor  
방문목적 교류협의 방문일자 2012. 6. 15

# UOS News

## 발전기금 소식

### 최찬환 교수, 장학금 1억원 기탁

올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건축학부 최찬환 교수가 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 재직 기간 중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펼친 최 교수는 퇴직을 준비하면서 지난해 7천만원을 기부했으며, 최근 3천만원을 추가 기부하여 1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자 한다며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학생들 장학금으로 지정 기부했다.

### 조윤희 교수, 대학발전기금 1천만원 약정

수학과 조윤희 교수가 지난 5월 9일, 학교의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원을 약정했다.

### '시립대와 함께라면 만원이어달리기' 캠페인 START

우리 대학의 발전 기금 확충을 위해 동문과 대학 전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모금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일명 '시립대와 함께라면' 캠페인은 기존의 방식을 탈피한 소액기부 캠페인으로 라면을 소재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다. 개교 100주년인 2018년까지 '시대인이라면 매달 1만원의 발전기금을 5년간 기부하지는 취지로 모금된 돈은 100주년 기념관 및 대학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5월 대동제에서 '나눔과 축제의 작은 바자회'를 열고 '시립대와 함께라면 만원이어달리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2012년 7월 현재 약정액은 약 7천만원이다.

**유태승 총동창회장·이해규 전 총동창회장, '시립대와 함께라면' 캠페인에 각 1천만원 쾌척**  
유태승 총동창회장과 이해규 전 총동창회장이

'시립대와 함께라면' 캠페인에 각 1천만원을 쾌척했다. 유태승 총동창회장은 '좋은 취지고 행사 내용도 재미있어 동참했다'면서 '이번 캠페인이 소액기부가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모교에 대한 애착과 긍지가 남다른 이해규 전 총동창회장도 캠페인에 사용된 삼양라면의 협찬을 적극 지원하는 등 '부담 없이 모교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니, 동문들이 많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 동호일식, 서울시립대 후원의 집 4호점

4월 20일 동호일식은 발전기금 200만원을 우리 대학에 기부 서울시립대 네 번째 후원의 집으로 등록되었다. 용담동에 위치한 동호일식은 20년의 전통과 맛을 자랑하는 일식당이다. 동호일식 오세종 대표는 서울시립대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보람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후원할 것임을 밝혔다.

한 분 한 분 전해지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며  
서울시립대학교는 더욱 열심히 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2. 03. 01~2012. 06. 30  
발전기금 누계액 : 19,736,915,550원

서울시립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발전기금 문의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 홍보·대외협력팀  
손란주 / 김선영 T. 02-6490-6321~2

발전기금 약정자

관계	성명	약정액	비고
기타	메가스터디㈜	214,500,000	
기타	한국어학당	139,288,660	
기타	㈜코스콤	95,700,000	㈜코스콤(라이선스 5년지원)
기타	잉글리쉬엔 주식회사	46,826,150	
교수	최찬환	30,000,000	건축학부
동문	건축학부동창회	28,800,000	동문15명
동문	토목공학과 동문회일동	10,000,000	
교수	조윤희	10,000,000	수학과
동문	박두환	9,600,000	무역84(우리은행)
기타	국제교류과	16,176,200	
기타	㈜스코노코리아	6,549,000	총학생회 현물지원
기타	손명식	6,000,000	국제관계학과 손나라 학생 학부모
교수	원윤희	5,000,000	세무전문대학원(정경대학장)
교수	고준환	5,000,000	공간정보공학과(도시과학대학장)
교수	서순탁	4,000,000	도시행정학과(교무처장)
기타	삼양식품㈜	3,006,200	함께라면 캠페인 현물지원
동문	고형석	3,000,000	건축80(㈜그룹신도시건축사무소)
동문	김정인	3,000,000	도시공93(중남발전연구원)
교수	김정현	2,000,000	화학공학과
기타	동호일식	2,000,000	후원외집 4호
기타	㈜생활의발전	2,000,000	
기타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캠퍼스6기	2,000,000	
동문	김승진	2,000,000	도시공84(㈜동해종합기술공사)
동문	화학공학과 총동문회	1,350,500	
직원	김태일	1,000,800	산학협력단

관계	성명	약정액	비고
직원	김은숙	1,000,000	기획처 홍보대외협력팀장
직원	조해정	1,000,000	학생처 학생상담센터팀장
기타	㈜제이에스픽처스	1,000,000	
동문	최상호	1,000,000	도시공86(₩KTS엔지니어링)
기타	㈜무비락	700,000	
기타	㈜그리고꿈꾸다	600,000	
기타	스카이팀	500,000	
기타	㈜월드보이즈필름	500,000	
기타	윤스칼라	500,000	
기타	테레비필름	500,000	
동문	김형기	500,000	화공68
동문	김영상	360,000	도행99 (주)대한감정평가법인)
기타	㈜픽스필름	300,000	
기타	㈜이김브로덕션	300,000	
동문	성기원	300,000	수익57
직원	이철	240,000	학생처
기타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200,000	
기타	교수학습개발센터	170,000	
기타	비씨카드	136,948	
기타	교수학습개발센터	120,000	
기타	학생처	114,000	
교수	이용범	50,000	환경원예학과(대학원장)
동문	유효정	35,000	경제02(국민은행)
동문	변희정	10,000	화공97
합계		658,933,458	

시립대와 함께라면 만원 이어달리기 약정

관계	성명	약정액	비고
동문	이해규	10,000,000	경영64(송암시스콤㈜)
동문	유태승	10,000,000	환경원예6(₩취일)
교수	임정하	3,000,000	법학전문대학원
동문	김승진	2,000,000	도시공84(₩동해종합기술공사)
교수	신재홍	1,800,000	생활체육정보학과
교수	김설환	1,800,000	생활체육정보학과(기획처장)
동문	박유영	1,800,000	조경12(조경학과 재학생)
교수	홍수민	1,800,000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성근	1,800,000	통계학과
교수	박 훈	1,800,000	세무학과
직원	손란주	1,200,000	기획처
직원	이종백	1,200,000	기획처 기획담당관
동문	박태일	1,200,000	경영83(한국증권거래소)
동문	이보덕	1,200,000	환경원예06 박사
교수	이 건	1,000,000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교수	오유성	1,000,000	생활체육정보학과
교수	이광훈	600,000	기계정보공학과(기획처장)
교수	제세영	600,000	생활체육정보학과
교수	이익주	600,000	국사학과(학사교육원장)
동문	장길환	600,000	법학90
동문	김경규	600,000	법학89
동문	양병웅	600,000	영문84(가길 트레이닝 리미티드)
동문	박경수	600,000	경영88(처음처럼)
동문	이재우	600,000	세무02(뉴시스)
직원	신언표	600,000	사회복지08(기획처 기획명기팀장)
직원	황경민	600,000	국사95(학생처)
직원	유미옥	600,000	자연과학대학 교학과
직원	박희영	600,000	기획처
직원	이중해	600,000	생체02(생활체육정보학과 조교)
직원	이상화	600,000	생활체육정보학과 조교
직원	김화영	600,000	총무과
직원	최은경	600,000	교무과
기타	민경숙	600,000	복지회
기타	김찬희	600,000	백제박물관

관계	성명	약정액	비고
기타	윤정희	600,000	도시과학연구소
기타	김경란	600,000	복지회
동문	황승중	600,000	경제00(대학원)
기타	황성민	600,000	황승중 동문 자녀
기타	황성준	600,000	황승중 동문 자녀
직원	최승영	600,000	기획처
동문	이기연	600,000	이농협)
교수	남 진	600,000	도시공학과(연구부처장)
교수	박인규	600,000	물리학과
교수	신성희	600,000	경제학부
직원	고영순	600,000	총무과
직원	김성근	600,000	총무과
교수	안상현	600,000	컴퓨터과학부
동문	이상재	600,000	경제92(중앙일보)
교수	김규식	600,000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최성모	600,000	건축학부
동문	최상호	600,000	도시공86(₩KTS엔지니어링)
동문	김영학	600,000	도시공89(₩KTS엔지니어링)
교수	박경완	500,000	나노과학기술대학원(연구처장)
교수	심미자	360,000	생명과학과
동문	박양수	300,000	경영86(ING LIFE)
교수	전철민	300,000	공간정보공학과(학생부처장)
교수	이주경	120,000	영어영문학과
동문	김수민	120,000	영문05
동문	남현미	120,000	영문00
동문	최우근	120,000	영문05
동문	이상동	120,000	법학90
직원	서성근	120,000	시설과
교수	장경원	100,000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위	100,000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준호	10,000	수학과
직원	김봉수	10,000	총무과
합계		66,600,000	

발전기금 용도

동문, 교직원 및 학부모, 개인, 기업체 등 서울시립대학교를 사랑하는 누구나 대학발전기금 조성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현금,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 현물 등 어떤 형태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하여 주신 기부금은 발전기금 재단의 목적사업지원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서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적사업

- 학술연구활동 지원사업
- 장학금 지원사업
- 학술·연구기자재 구입 및 시설확충사업
- 후생복지시설 확충사업
- 대학문화, 체육 및 홍보활동 지원사업
- 강촌수련원 시설설치 및 운영사업



기부자 예우 대학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신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예우 및 혜택을 드립니다.

- 일정금액 이상 장학금 용도로 기탁 시 기부자 명의의 장학금 운영
- 학교 내 특정건물이나 조경수 등에 이름 남기기
- 학교 소식지, 학교 캘린더 등 홍보물 발송
- 세제 감면을 받으실 수 있도록 발급
  - 개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
  - 법인 :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
- 기부자 명부를 학교홍보물 및 홈페이지 등에 기재
- 총장명의로 감사패 또는 감사장 전달
- 주차, 도서관 등 학교시설 이용 시 편의 제공
- 강촌수련원 이용 시 편의 제공

예우내용 / 기부액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총장 초청 만찬 초대	-	-	-	0	0	0
학교 행사 초청	-	0	0	0	VIP	VIP
학교상징 건물 및 조형물에 기부자명 각인	-	0	0	0	0	0
총장명의로 감사패 증정	-	-	-	0	0	0
학교 기념품 증정	-	0	0	0	0	0
캘린더 및 연하장 발송	0	0	0	0	0	0
학교 정기간행물 발송	0	0	0	0	0	0
학교 방문 시 무료주차권 발급	0	0	0	0	0	0
평생 차량 출입증	-	0	0	0	0	0
시민대학 수강료 할인*	-	10%	30%	50%	무료	무료
웰니스센터 이용(실내테니스장 별도 문의)*	-	30%	50%	무료	무료	무료
강촌수련원 지정기부자수련원 건물 내 동판에 금액대별 기부자명 각인	-	0	0	0	0	0 (단독 동판)

\* 위 예우표는 기부금액 기준이며 예우내용(별표)는 혜택기간이 제한적임

# Happy Ending? Happy Anding!

새로운 낯선 땅을 밟는다는 것, 낯선 길을 여행한다는 것, 생각만해도 기분 좋은 설렘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세계인은 58호 테마인 '땅을 밟고 길을 걷자'를 주제로 독자분들의 여행 이야기를 모아 보았습니다. 즐거웠던 추억과 함께 아꼈었던 기억도 있었지만 여행은 언제나 Happy Ending입니다. 그리고 추억을 되새기는 서울시립대인의 마음은 언제나 Happy Anding이 아닐까요?



02



03



04

### 01. 김재만 학생(도시행정 09)

겨울여가의 촬영지, 한류로 유명한 남이섬에 여자친구와 갔을 때입니다. 곳곳에서 관광 온 외국인들을 보니 아직 식지 않은 한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사진은 그 유명한 메타세콰이어길에서 당시 제 기분을 표현하며 찍은 것입니다.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여행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 02. 화학공학과 이종범 교수

작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디즈니월드에서 미니마우스와 함께 찍기 위해 무더위 속에서 줄을 기다려 찍어낸 한 컷입니다. 사실 둘째 아이도 있었는데 너무 어린 관계로 사진에서는 빠졌어요. 나중에 이 사진을 보고 왜 자기는 없냐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마지막 가족여행이라 무척 기억에 남는 여행입니다.

### 03. 나유진 학생(경영 07)

유럽 한 북반에서 국제미아가 되었습니다. 여권, 휴대전화 그리고 단 한 푼의 돈조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던 저는 그때 친절하신 독일 경찰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 분 덕분에 여권을 포함한 제 모든 짐들을 찾을 수 있었고, 무사히 유럽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 후, 이제 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차분히 해결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 04. 최아현 학생(도시행정 10)

작년 여름, 중국으로 가족여행을 갔을 때예요. 중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벌레, 불가사리 등등 정말이지 중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 다양한 음식, 화려하고 웅장한 경치, 중국인들의 인심과 왓지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중국으로 떠난 3박 4일 간의 가족여행은 제게 완벽한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 다음 59호 스페셜 테마는 '타임머신을 타고'입니다.  
'내가 만약 타임머신을 탄다면 어느 시대로 가고 싶은가'라는 주제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글들을 모집합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음료상품권과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e-mail : miracl2u@uos.ac.kr

접는선

보내는 이

\_\_\_\_\_  
\_\_\_\_\_  
\_\_\_\_\_

□□□□ - □□□□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6.1 ~ 2013.5.31  
동대문우체국  
승인 4021호

받는 곳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본관 8층 기획처

1 3 0 - 7 4 3

